

#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의 標準化 研究

-各 體質集團의 群集別 Profile 分析을 中心으로-

金善豪 · 高炳熙 · 宋一炳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적 문항 분석을 통하여 새로 개발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네가지 척도를 각 계층별로 표준화하여 그 진단 정확율을 알아 봄으로써 객관적인 사상 체질 분류의 검사 방법을 만드는데 있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는 전국에서 각 계층별(연령, 성별, 생활 수준별)로 고르게 수집된 1366명의 피검자의 답안을 표준화 자료로 삼았다. 진단 정확율을 알아보기 위한 준거 집단으로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 외래 환자 및 동서건진센터 내원객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V. 4.0 Program으로 내적 일치도, 변량 분석(ANOVA), 사후검정(Duncan test) 및 판별분석을 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체질별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0.5708 ~ 0.6319로서 설문지 구성에 체격과 체형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검사지의 각 척도는 변량분석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지의 문항은 진단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검사지의 응답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가운데 연령·성별 그리고 문항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변인을 고려한 규준(Norms)을 표준화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검사지에 의한 체질진단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이 논문은 제2회 사상의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임.

참고) 본 논문에서 각주번호는 머릿글의 “)”으로, 참고문헌은 “>”로 표기하였음

5) 검사지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6) 검사지에서 새로 구성된 척도들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평균 판별정확율은 70.08%였다. 이 결과는 QSCC의 타당화 연구에서 보인 평균 판별정확율 55.56%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분류정확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7) 검사지의 네 가지 척도들은 이전의 검사지에 비하여 고르게 체질진단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8) 검사지는 분석결과 이전의 검사지들 보다 사상체질 진단에서 정확율 향상, 차별화된 계층별 체질 진단 방법의 제시에 의한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새로 개발되어 표준화된 QSCCⅡ는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임상·상담 및 실험 연구에서 체질 진단을 할 때 객관적인 체질진단 도구로서 이용 가치가 인정되며 사상체질분류의 객관 기준으로서도 그 가치가 인정된다.

# I. 緒 論

## 1. 研究의 意義

最近에 이르러 四象醫學이 一般人들에게도 낯설지 않는 用語로 認識되면서 疾病의 治療에서 뿐만 아니라 自身の 體質에 對한 理解와 個人의 健康 維持 등을 爲해 四象體質을 參考로 하는 境遇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臨床에서 體質을 診斷하는 過程에 參考할 客觀的인 基準이 提示되어 있지 않아 體質診斷은 主觀的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臨床, 個人相談, 研究 등의 目的으로 使用될 수 있고 體質 分類의 客觀的 基準이 될 수 있는 方法이나 道具의 開發이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있다.

四象醫學을 應用할 境遇에는 무엇보다도 正確한 體質診斷이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體質의 區別이 年齡·性別·環境 要因·文化 要因 및 所屬 集團의 差異 등을 考慮하여 正確하게 測定되려면 먼저 檢查方法 내지 檢查道具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四象體質醫學의 理論과 그 體質 分類 方法에는 直觀과 經驗에 依한 部分이 많아서 客觀性이 적은 것이 事實인 바 檢查 方法의 開發에는 반드시 客觀性의 確保가 함께 考慮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理論과 方法은 客觀的으로 實驗된 研究를 통해서 實證 되어야 學問的인 信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韓醫學界에는 臨床에서 實際로 使用이 可能한 客觀的인 體質分類 檢查에 對한 研究<sup>5-8,13-17,19,25,29,30-32</sup>가 微微한 狀態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만들어진 몇몇의 檢查方法 및 道具들은 大部分 個人的인 所見에 依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檢查道

具로서 開發된 設問紙의 境遇에도 設問을 構成하는 問項들이 統計的인 檢證과 그를 통한 濾過 및 選擇 過程을 거치지 않은 狀態로 製作되어져 있다. 또 統計的 方法을 통해 妥當度가 檢證된 設問紙<sup>9,21</sup>라 하더라도 그것의 診斷 正確率이 60%를 넘지 못하는 것<sup>1)</sup>으로 나타났다. 著者が 研究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는 높지 못한 診斷正確率 問題 外에도 評價 節次가 標準化 되어있지 않으므로 各 階層別로 點數 比重에 差異를 두거나 採點方式에 偏差를 두어야 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는 指摘도 받아 왔다.

이에 著者は 위에서 言及한 問題點들을 解決한 體質分類檢査를 開發하고 그것을 體質診斷의 客觀的인 基準이 되는 道具로서 提示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새로운 設問紙 QSCC II를 만든 다음 設問紙 應答點數에 對한 平價를 各 階層別로 다르게 하는 標準化<sup>2)</sup> 作業을 하므로써 QSCC II를 利用한 體質診斷에 對한 客觀的 指標를 提示하였다. 本 研究는 QSCC II의 標準化 作業을 爲한 그 첫 번째 것이다.

## 2. 研究의 目的

QSCC II의 標準化 研究의 目的은 QSCC와 그에 關聯된 論文<sup>4,9,10,21,24,26,28</sup>들을 參考하여 새로운 構成과 內容이 追加된 QSCC II를 만들고 이를 分析하는 方法과 檢査結果를 階層別로 다르게 平價하는 標準化 方法을 研究함으로써 實際 臨床에 活用할 수 있고 客觀的으로 正確하게 體質을 判別할 수 있는 診斷의 基準이 되는 道具를 만들고 이 道具에 依한 體質 診斷의 客觀的 指標를 提示하는 것이다.

## 3. 研究의 方法

本 研究에서는 QSCC의 妥當化 研究 考察에 提起된 問題點<sup>9)</sup>을 補完 또는 修整하고, QSCC와 關聯된 여러 論文에서 提起된 問題點과 數次例의 論議 過程에서 指摘된 事項을 改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努力의 一環으로 우선 QSCCⅡ의 構成을 本文에 記述한 바와 같이 問項의 辨別力이 認定되어 體質特性을 가장 잘 測定할 수 있다고 確證된 97個 問項으로 再構成 하였다. 이러한 豫備 研究를 通하여 새로 製作된 QSCCⅡ를 가지고 그것의 妥當度를 檢證하고 標準化하기 爲하여 全國에서 年齡·性別 및 學歷 等を 考慮하여 階層別로 고르게 抽出한 1366名에게 設問 調査를 實施하여 資料를 收集하였다. 이를 根據로 하여 信賴도와 妥當度를 再次 檢證하고 그 分析 方法을 研究하고 階層別로 標準化 作業을 하였다.

以上の 研究를 通하여 나온 資料를 統計 處理하고 分析 觀察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이 有意한 成績을 얻었으므로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研究 節次 및 方法

### 1. QSCCⅡ의 製作 過程 및 새로운 尺度 構成을 爲한 豫備 研究

慶熙醫療院 韓方病院 四象醫學教室 教授를 包含한 韓醫師 9名, 臨床心理學者, 國語學科 및 哲學科 教授가 94年 10月부터 6個月 間 每週 한번씩 conference를 갖고 問項別로 東醫壽世保元 및 格致叢의 原文과 對照하면서 討議를 하였다. conference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點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原文에서 漢文으로 表現된 內容을 一般人

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再解釋 해야 할 것인가

둘째 QSCC 研究에서는 問項適格度가 낮았었다 하더라도 反應 頻度가 높거나 辨別力이 있을 것이라고 認定되는 問項을 그대로 둘 것인가의 與否

셋째 QSCC 研究에서는 問項適格度가 높았었다 하더라도 國語學的 意味 또는 哲學的 意味가 제대로 表現되지 못한 文句를 바꿀 것인가의 與否

넷째 少陰人이 QSCC에서 제대로 鑑別되지 못하는 바 少陰尺度의 補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體格, 體型關係 및 病症內容을 問項에 包含시킬 것인가의 與否

여섯째 問項의 원래 意圖와는 다르게 다른 尺度로서의 可能性이 많은 問項을 어느 尺度로 計算할 것인가의 與否

일곱째 經驗的으로 認定된 體質診斷 內容을 問項에 挿入할 것인가의 與否

여덟째 關聯論文에서 有意性이 있다고 認定된 다른 設問紙의 問項을 收錄할 것인가의 與否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여 原文의 哲學的 概念과 그러한 概念을 어떻게 表現 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各各 哲學科 教授와 國語學者에게 諮問을 求하였고, QSCC 妥當化 研究에서 낮은 問項適格度로 因해 脫落된 問項들을 代替하기 爲해 이 部分에 對한 原文을 再解釋하여 問項을 修整하였으며, 어색한 表現을 없애기 爲해 몇 개의 問項을 補完하였다. 또, 既存의 QSCC는 少陰人에 對한 診斷判別力이 낮으므로<sup>10)</sup> 修正된 QSCC에서는 少陰尺度<sup>3)</sup>를 追加하여 構成하였다. 以上과 같은 努力을 通하여 conference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點을 大多數 解決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修整된 QSCC를 製作하여 四象醫學會 會員을 對象으로 1995年 4月 1次로 設問 調査

한 다음, 이때 나온 應答資料를 問項 採擇의 根據로 確保하였다. 이 過程에서 四象學會 會員들로부터 重要的 問題點이라고 指摘된 內容과 그것을 解決하기 爲한 方案으로 討議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質問이 具體的이지 못하다. 狀況에 따라 다른 對答이 나올 수가 있다. 設問 應答에 主觀的인 判斷이 많게 된다.” 라고 指摘된 問題點은 設問 方法이 自己報告式이므로 主觀的인 對答이 意味가 있으므로 設問紙 결장에 設問에 答하는 要領을 整理할 때 “4. 다른 사람의 判斷에 拘碍받지 마시고 自身에게 該當되는 答을 選擇하십시오.”라고 說明 함으로서 解決 하였다.

둘째 “環境 敎育 程度 先天性 性向과 後天性 性向을 考慮하여 問項을 作成해야 한다” 는 問題는 本 研究의 目的이 QSCCⅡ의 各 階層別 標準化<sup>4)</sup>이므로 標準化된 以後에는 위의 指摘 事項이 어느 程度 考慮된 體質 診斷이 이루어진다.

셋째 “問項 配列의 調整이 必要하다, 意味가 重複된 問項이 많다” 는 指摘은 最終 設問紙의 構成에서는 統計分析 後에 辨別力이 높은 問項만을 採擇 하여 可能的 한 重複된 問項을 없애고 問項을 再配列 하였다.

넷째 “表現이 一般人이 認識하기 어렵다”는 指摘은 數次例의 檢討 過程에서 表現의 애매한 部分과 難解한 部分을 平易하고 簡潔하게 再翻譯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病症項目이 未洽하다” 는 問題는 病症 部分에서 客觀的인 評價로 轉換하여 設問化 시키기에 가장 適切한 問項을 原文에서 찾아내어 이를 다시 統計處理한 다음 辨別力이 높은 問項을 採擇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問項數가 體質別로 같지 않아 偏向性이

있다”라는 問題는 檢査解析 方式에서 問項 數를 考慮한 標準點數로 換算하므로써 解決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解決方案은 以後의 討議過程과 統計處理 過程에서 모두 反影된 바 있다.

그 外에도 아래와 같은 過程을 거쳐 標準化된 QSCCⅡ를 完成하였다. QSCCⅡ에서는 QSCC 뿐 아니라 다른 設問紙에서 辨別力이 이미 立證된 問項을 새로이 添加하였다. 調査用 設問紙에서는 設問紙 構成에 있어서 質的인 變形을 試圖 했는 바 問項을 客觀式과 主觀式 둘로 나누어 A에서는 1-15番까지로 4가지 尺度 중 하나에는 반드시 該當될 수 있는 問項을 拔萃하며 客觀式 形式으로 構成 하므로써 無應答을 없애도록 配慮하였다. 이렇게 해서 製作된 豫備檢査 問項들을 印刷한 後 全國에서 階層別로 抽出된 被檢者들에게 設問調査를 實施하였다. 이 問項들을 다시 統計 分析한 結果 나오게 된 設問紙가 標準化된 QSCCⅡ이다. QSCCⅡ의 全體 內容은 <附錄1.>에 收錄 하였다.

새로운 問項이 追加된 QSCCⅡ의 標準化 研究를 爲한 豫備研究에서는 問項의  $\chi^2$ (chi-square)<sup>5)</sup> 分析을 통해 새롭게 構成한 問項과 既存에 있던 問項과의 問項辨別力 比較를 해보았으며 새로운 問項을 添加한 다음 또다시 診斷 判別力을 알아보았다. 이때 問項辨別力 檢證을 통해 새로 構成된 各 尺度別 最終 採擇된 問項 數는 客觀式 14個, 主觀式 83個, 總 97問項이다. 이 問項들은 大部分이 原文<sup>23</sup>을 根據로 하여 翻譯된 理性的 接近方法<sup>6)</sup>에 依해 作成된 問項들이며 그 外에도 다른 設問紙<sup>7)</sup>에서 有意性이 認定된 問項을 選擇 하여 追加한 것도 多少 包含되어 있다.

## 2. 本 研究의 對象

被檢者는(男子 668名 女子 678名 性別無應答 20名) 總 1366名이었다. 이 가운데 專門醫에 依해 體質診斷을 받아서 標準化 研究의 準據資料로써 活用된 對象은 265名(全體 274名 中 體質診斷이 不明確한 9名 除外)으로 慶熙醫院 韓方病院 四象醫學科 外來 患者와와 東西健診센터 來院 患者를 對象으로 調査되었다. 標準化 研究를 爲한 規準(Norms)을 마련하기 爲하여 總 1366名에 對한 設問檢査는 性別·年齡(10代 中學生~60代 以上) 및 教育水準 等을 考慮하여 各各의 階層別로 高르게 標集하여 全國 各 地域을 任意로 選定하여 1995年 4月부터 9月까지 5個月에 걸쳐 實施하였다.

### 3. 統計 處理 方法

이 檢査 結果는 인제의대 부속 백병원 臨床心理學科에서 컴퓨터로 採點되고 分析되었다. QSCC II의 標準化 研究를 爲해 SPSS PC<sup>+</sup> V4.0 分析 프로그램<sup>23,22,27</sup>을 利用하였다. 그리고 各 尺度의 信賴度 檢査를 하기 爲하여 cronbach's  $\alpha$  係數를 求하였다

또 標準化 資料의 마련을 爲하여 標本集團의 各 階層別 平均(M), 標準偏差(SD)를 求하고 變量分析(ANOVA)<sup>8</sup>을 하였는데, 標準化 方法은 臨床心理學 分野에서 使用되어지고 있는 設問紙의 標準化 作業을 參考<sup>1,11,12</sup>로 하였다. 이때 各 體質集團이 어느 尺度에서 統計적으로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爲하여 F檢證을 하였다. 變量分析後 個別集團 差異를 알아보아 基準妥當度を 求하기 爲해서는 Duncan test<sup>9</sup>를 實施하여 事後檢證을 하였다. 이때에 統計的 意味는  $P < 0.05$  水準으로 定하였다.

또한 平均 正確判別率을 求하기 爲하여 判別分

析을 實施하였다

### 4. 檢査 實施 方法 및 採點 方法

檢査에 있어서 客觀性을 確保하고자 臨床心理學 分野에서 應用되고 있는 몇몇 設問紙의 檢査 要領을 參考<sup>1,18</sup>하여 檢査實施 要綱을 定한 後 設問調査를 實施 하였는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檢査를 實施하는 方法은 設問紙에 印刷되어 있는 指示文을 읽어보게 한 다음 答하는 要領을 간단히 說明해 주면 된다. 被檢者들은 가끔 어떤 問項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反應을 하는데 이런 境遇에는 “그럼 그 問題는 놔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해 보도록 하십시오”라고 만 말해 주면 된다. 그리고 끝나기 前에 빠뜨린 問題를 完成하게 한다. 原則적으로 時間 制限은 없으나 大部分 被檢者는 15-30分 程度에 檢査를 完了하므로 지나치게 오래 끄는 사람에게는 한 文章을 오래 생각하지 말고 自然스럽고 便宜하게 자주 使用하는 傾向을 選擇하도록 勸해야 한다. 檢査者는 被檢者에게 어떤 影響을 끼치지 않아야 하므로 指示文 以外의 發言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單獨 檢査일 境遇 다른 사람이 妨害하지 않는 조용한 檢査室이 있으면 被檢者 혼자서 檢査를 받도록 하고 끝난 뒤에 回收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檢査實施 後에 반드시 問題紙와 答案紙는 回收해서 保管하거나 破棄시켜서 個人情報의 流出을 막아 秘密을 保障해야 한다.

檢査의 客觀性은 實施客觀성과 採點客觀性의 둘로 區分할 수 있는 바(Lienert,1969) QSCC II에서는 問題紙에 實施要領을 자세히 說明하여 檢査者의 指示나 說明을 不必要하게 하여 檢査者의 影響을 排除함으로써 實施客觀性을 確保하였다. 그리고 檢査에 參與 하지 않은 評價者에게 依賴하

여 컴퓨터로採點 하므로써採點客觀性도確保하였다.

1995年 9月19日 1次 統計分析 結果에 따르면問項에 比重을 두지 않았을 때보다問項에 比重을 달리하는 等으로 統計處理 方法을 變化시키면 診斷正確率을 높일 수 있다고 判斷되었다. 그러므로 QSCCⅡ를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採點하기로 하였다. 먼저 問項 1-3까지(體格 및 體型에 對한 部分)의 採點方式은 基本點數 外에도 Table 1.에 提示된 것대로 採點하여 分析한 뒤 加算點을 주는 方式을 追加 하였다.

Table 1. Calculation List of Additional Marks on Grading Item 1, 2 and 3

		Tae-yang	So-yang	Tae-eum	So-eum
Item1	①	3	1	3	1
	②	2	2	2	2
	③	1	3	1	3
Item2	①	1	3	3	1
	②	2	2	2	2
	③	3	1	1	3
Item3	①	3	3	1	1
	②	1	1	3	3
	③	2	2	2	2
Total		39	39	39	39

Table 1. 와같이 採點한 다음 問項 1·2·3을 分析하여 辨別力을 檢證한 結果가 太陽·少陽尺度로서는 價値가 높지 않으므로 加算點을 주지 않고 太陰·少陰尺度로서는 辨別力이 높은 것으로 認定되어서 加重值로 3點을 基本 點數값에 追加로 더하여 採點하였다. 問項 1·2·3에 加重值를 주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太陰 配點點數의 合計가 다른 모든 尺度보다 1點 以上 높을 때 問項 1·2·3에 對한 太陰尺度 基本點數에 追加로 3點을 더하고, 少陰 配點 點數의 合計가 다른 모든 尺度 點數 보다 1點 以上 높을 때는 問項 1·2·3에 對한 少陰尺度 基本點數에 3점의 加算點을 더 주는 式으로 하였다. 問項 1·2·3에서는 以上과 같이

基本點數 外에도 應答性向에 따라 3點의 加算點을 주는 方法을 採點하는 方法으로 採擇했다.

모든 問項을 採點을 할 때에는 原來의 意圖가 A尺度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B尺度로서 價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有用한 問項들을 B尺度에 追加시켜 採點하였다. 例컨대 問項 8-⑩等은 原來 意圖와는 다른 尺度로 認定된 問項이라 할 수 있다.

모든 問項에 對하여  $\chi^2$ 分析을 한 다음 辨別力이 높은 지의 與否를 알아보았다. 그 結果 辨別力이 높다고 認定되는 問項은 基本點數에 1點을 더 加算하여 採點하였다. 加算點을 주는 問項을 Table 7·8·9·10에 “問項適格度◆”로 表示하였다.

以上과 같이 調整을 한 다음 採點을 다시해 본 結果, 問項의 尺度間 調節과 問項의 加重值 賦與前보다 平均 正確判別率이 約 20% 가량 上昇하였으므로 이 方法을 採點 方式으로 確定하여 分析하였다.

먼저 위와 같이 採點을 하여 各 尺度別 原點數를 標準化된 T點數로 換算하여 그 값을 判別分析에 提示된 2個의 判別方程式에 代入한다. 이때 나온 값을 集團中央值表와 對照하고 集團中央值表에서 이 값과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진 體質을 찾아서 그 體質을 設問紙가 判斷한 體質로 決定한다.

### Ⅲ. 研究 結果 및 論議

#### 1. 標本集團 說明

QSCCⅡ 標準化 豫備研究에 使用된 標本集團의 選定基準은 아래 Table에서 그 集團의 人口統計學的 分布를 整理함으로써 代身한다. 全體 被檢者 數는 1366名이었다. 이 檢査가 장차 쓰일 用

途를 考慮하여 各 性別·年齡代別 集團을 비슷한 規模로 標集하였다. 이들 標本集團의 性別 分布는 男女가 비슷한 比率로 나뉘어졌고 20名의 無應答者가 있었다(Table 2). 學歷水準은 高卒과 大卒 以上이 全體의 60% 以上을 차지하여 대체로 높은 水準이다(Table 3). 結婚 狀態는 未婚32.9% 이고, 約 70% 가량이 結婚經歷이 있다(Table 4). 職業 分布는 家事 및 勞動·學生·事務行政職 順으로 많았고 나머지 職業에는 비슷한 比率을 보였

는데, 이 結果는 本 研究 對象이 주로 主婦, 學生, 會社員들이었음을 意味한다(Table 5). 血液型에 對한 統計値는 Table 6에 提示하였다.

Table 2. Distribution of Sex Distinction in Normative Sample Group

	Male	Female	Missing	Total
Cases	668	678	20	1366
%	48.9	49.6	1.5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Education Level in Normative Sample Group

	Uneducated	Elementary	Middle	High	Above college	Missing	Total
Cases	27	207	152	440	492	48	1366
%	2.0	15.2	11.1	32.2	36	3.5	100.0

Table 4. Distribution of Marital Status in Normative Sample Group

	Married	Single	Separated	Bereaved	Divorced	Living together	Missing	Total
Cases	826	450	7	38	7	6	32	1360
%	60.5	32.9	0.5	2.8	0.5	0.4	2.3	100.0

Table 5. Distribution of Occupation in Normative Sample Group

	Student	Clerk or administrator	Researcher or specialist	Enterprise manager	Judicial officer	Medical member	Engineer	
Cases	258	241	145	75	27	28	59	
%	18.9	17.6	10.6	5.5	2.0	2.0	4.3	
	Religion related job	Public security personnel	Farming or fisheries	Artist or athlete	Service	Housekeeper or laborer	Missing	Total
Cases	30	10	33	17	66	314	63	1366
%	2.2	0.7	2.4	1.2	4.8	23.0	4.6	100.0



Table 6. Distribution of Blood Type in Normative Sample Group

	A type	B type	O type	AB type	Missing	Total
Cases	444	357	334	159	72	1366
%	32.5	26.1	24.5	11.6	5.3	100.0

## 2. 問項 分析 및 信賴度

QSCCII의 問項을 分析한 結果에 對하여 尺度別로 記述하면 아래와 같다. 豫備 檢査에 包含된 各 尺度에 屬하는 問項數는 採擇된 問項과는 多少 差異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標準化 檢査에 最終的으로 選擇된 問項들만 紹介하겠다.

統計分析 結果 總 97個 問項이 選擇되었는데, 選多型 問項을 한 問項씩으로 計算해 볼 때 各 尺度別로 살펴보면 太陽 尺度는 24個 問項, 少陽 尺度는 39個 問項, 太陰 尺度는 39個 問項, 少陰 尺度는 51個 問項 이었다. 高等學生 集團, 大學生 集團 그리고 一般人 集團을 따로 따로 問項分析 했으나 서로 큰 差異가 없었으므로 여기서는 全體 集團을 통틀어 計算한 結果만 提示한다.

問項 分析 過程 中에서 問項 辨別力 檢證을 통해 새로이 構成된 各 尺度別 問項內容·問項適格 度 및 加算點 與否를 表示하여 Table 7·8·9· 10에 提示하였다. 問項의 採擇은 各 尺度에서 問 項適格度가 -0.15 以上인 것을 採擇하였다. 各 問項의 採擇 過程 및 그 理由에 對한 資料는 附錄 2에다가 原文內容·QSCC內容·QSCCII 分析후 決 定된 問項適格度·該當 尺度및 加算點與否의 內容 을 함께 모아서 收錄 하였다.

### <太陽尺度>

問項 全體간의 相關係數로 表示되는 問項適格 度を 살펴보면 우선 가장 높은 問項은“ 34. 성격

이 시원시원하다.” 였고, 가장 낮은 問項은 “ 6-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였다. QSCCII에 서의 太陽 尺度는 比較的 異質的인 內容의 問項으 로 構成되어 全體 要因에 對한 信賴度가 Cronbac h's  $\alpha$ 係數가 0.5708에 達하였는 바 앞에서도言 及하였 듯이 問項內容이 多樣함을 알 수 있다.

QSCCII의 太陽 尺度에 該當하는 問項 24個 가 운데 QSCC 分析後 太陽 尺度로 採擇되었던 問項 이 그대로 있거나 多少 修整된 表現으로 다듬어진 問項은 8個( 7-③, 8-②, 17, 48, 61, 62, 78, 92)이 며 나머지 16個 問項은 새로 導入된 問項이거나 QSCCII分析 結果 새로이 辨別力이 立證되어 太 陽 尺度의 問項으로서 價値가 認定된 問項들이다. 結局 QSCCII의 太陽 尺度에서 QSCC 問項이 包 含된 것은 全體의 33% 程度이고 나머지 67% 程 度는 새로 開發된 太陽 尺度 問項이라 할 수 있다. 새로 開發된 問項들은 過去에 QSCC에서 除外 되 었던 問項 들을 再解釋하여 表現을 바꾸고 나서 辨別力이 높아 짐으로써 다시 採擇 되었거나, 太 陽 尺度가 아닌 다른 尺度 었던 問項이 分析 結果 太陽 尺度로서 價値를 認定 받아 採擇 되었거나, 原文을 通하여 새로이 開發 되었거나 또는 關聯 論文을 通하여 妥當度가 立證된 다른 設問紙에서 의 問項들이다. 새로운 問項 16個(67%)에 該當하 는 問項番號는(1-①, 3-①, 6-④, 7-④, 9-④, 12- ①, 34, 40, 41, 68, 83, 90, 97,102, 108, 113)이다. 새로운 問項 中 體格 및 體型에 對한 問項은 4個 의 問項(1-①, 3-①, 6-④, 9-④)이며 이 結果에

Table 7. Contents and Item-Total Correlations in Tae-yang Scale (N=24)

No.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1	① 체격이 큰 편이다	0.16
3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0.12
6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0.00
7	③ 시원한 음식	
7	④ 차가운 음식	0.05
8	②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0.11
9	④ 걸음걸이가 꼳꼳하다	0.01
12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0.15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0.29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0.34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23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19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0.25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0.32
62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0.19
68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0.28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0.25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0.19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0.16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0.16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0.20
102	이유 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0.12
108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0.16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0.09

◆ means that items are given additional marks.

Items without marks of correlation are selected because of their high item discriminability.

Table 8.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and Additional Marks in So-yang Scale (N=39)

No.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and Additional Marks
1	② 보통이다	-0.09
3	①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0.09◆
4	②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부위가 빈약하다.	0.07
5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0.09◆
6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7	① 뜨거운 음식	0.02
7	④ 차가운 음식	
8	①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	-0.34
9	③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0.19◆
10	③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0.05
12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0.26◆
14	② 나는 너무 집값은 책하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0.07
15	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다	0.23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0.18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0.29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0.19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0.12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0.23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0.29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0.15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0.19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0.36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0.06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0.22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0.14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0.24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0.30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0.34
74	예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28
75	아는 척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0.28
84	자신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
93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Table 9.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and Additional Marks in Tae-eum Scale (N=39)

No.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and Additional Marks
1	① 체격이 큰 편이다	0.22◆
2	① 뚱뚱한 편이다	0.28◆
3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0.18
4	③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0.62◆
5	① 팔길이 크고 살이 쪼는 편이다	0.32◆
6	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 (비만형)	0.21◆
7	③ 시원한 음식	0.03
7	④ 차가운 음식	
8	②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0.12◆
9	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0.11◆
10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0.17◆
12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0.06
13	①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	-0.01
14	① 나는 너무 예의 차리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0.06
15	①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0.14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0.19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0.21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0.05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0.10
30	사람을 사귈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0.06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겨이 참여한다	0.11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27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21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23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0.13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0.09
53	인내심이 많다	0.15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0.21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0.20
74	예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05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0.17
85	자신에게는 소홀히 하고 남에게는 각듯이 대한다	0.19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0.07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0.07
103	변을 보고 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0.12
110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0.21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0.13
118	간혹 눈 주위가 땀뻑할 때가 있다	0.22
121	겨울철에 찬 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0.19

Table 10.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and Additional Marks in So-eum Scale(N=51)

No.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s and Additional Marks
1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0.11◆
2	③ 마른 편이다	0.18◆
3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0.10◆
4	④ 엉덩이 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0.11
5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0.21◆
6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0.24◆
7	① 뜨거운 음식	0.08
7	② 따뜻한 음식	
8	①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0.17◆
9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압전하다	0.06◆
10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0.25◆
12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0.15◆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0.15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0.14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0.07
30	사람을 사귈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0.17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0.07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0.12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0.11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10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0.02
50	처음에 낯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0.19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0.26
53	인내심이 많다	0.10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0.15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0.20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0.23
72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0.22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0.16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0.17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0.19
81	모임이 있을 때 평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0.22◆
84	자신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0.13
8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0.11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
96	말로는 서로 툭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툭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0.15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
105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0.20
11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	0.33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0.24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	0.26

따르면 太陽人의 體格 條件은 體格이 크고, 上體가 발달하였고 가슴이 벌어지고 堅實하며, 걸음걸이가 꼳꼳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分析結果 太陽人의 體格問項에 加算點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타났다. 새로운 問項 中 病症에 對한 問項은 3問項(102, 108, 113)이다.

### <少陽尺度>

問項 全體間의 相關係數로 表示되는 問項適格度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높은 問項은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였고, 가장 낮은 問項은 “8-①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 였다. QSCCⅡ에서의 少陽尺度는 比較的 異質的인 內容의 問項으로 構成되어 全體 要因에 對한 信賴度가 Cronbach's  $\alpha$  係數가 0.5896에 達하였는 바 앞에서도言及하였 듯이 問項內容이 多樣함을 알 수 있다.

QSCCⅡ의 少陽尺度에 該當하는 問項 39個 가운데 QSCC分析 後 少陽尺度로 採擇되었던 問項이 그대로 있거나 多少 修整된 表現으로 다듬어진 問項은 11個(7-④, 15-②, 19, 20, 31, 49, 61, 63, 75, 84, 93)이며 나머지 28個 問項은 새로 導入된 問項이거나 QSCCⅡ分析 結果 새로이 辨別力이 立證되어 少陽尺度의 問項으로서 價値가 認定된 問項들이다. 結局 QSCCⅡ의 少陽尺度에서 QSCC問項이 包含된 것은 全體의 28% 程度이고 나머지 72% 程度는 새로 開發된 少陽尺度 問項이라 할 수 있다. 새로 開發된 問項들은 QSCC分析에서 除外되었던 問項들은 再解釋하여 表現을 바꾸고 나서 辨別力이 높아짐으로써 다시 採擇되었거나, 少陽尺度가 아닌 다른 尺度였던 問項이 分析結果 少陽尺度로서 價値를 認定 받아 採擇되었거나, 原文을 通하여 새로이 開發되었거나 또는 關聯論文을 通하여 妥當度가 立證된 다른 設問紙에

서의 問項들이다. 새로운 問項 28個(72%)에 該當하는 問項番號는(1-②, 3-①, 4-②, 5-③, 6-②, 7-①, 8-①, 9-③, 10-③, 12-②, 14-②, 16, 18, 25, 26, 28, 37, 39, 48, 52, 54, 55, 57, 58, 59, 66, 69, 74)이다. 새로운 問項 中 體格 體型에 對한 問項은 6個의 問項(1-②, 3-①, 4-②, 5-③, 6-②, 9-③)이며 이 結果에 따르면 少陽人의 體格 條件은 보통 體格에 上體가 發達하였으며 가슴 部位가 잘 發達하고 엉덩이 부위가 貧弱하며 걸음걸이는 빠르고 몸을 흔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分析結果 少陽人의 體格問項에 加算點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타났다. 새로운 問項 中 病症에 對한 問項은 1個의 問項(10-③)이다. 全體 問項에서 少陽尺度에 辨別力이 높은 것으로 認定되어 加重值로 1點을 더 주는 問項은 다음과 같다. “3-① 상체가 발달되어있다. 5-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9-③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12-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84 자신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 <太陰尺度>

問項 全體間의 相關係數로 表示되는 問項適格度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높은 問項은 “4-③ 허리 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였고, 가장 낮은 問項은 “13-①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 였다. QSCCⅡ에

서의 太陰尺度는 비교적 異質的인 內容의 問項으로 構成되어 全體 要因에 對한 信賴度가 Cronbach's  $\alpha$  係數로 0.5922에 達하였는바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問項內容이 多様함을 알 수 있다.

QSCC II의 太陰尺度에 該當하는 問項 39個 가운데 QSCC 分析 後 太陰尺度로 採擇되었던 問項이 그대로 있거나 多少 修整된 表現으로 다듬어진 問項은 4個(8-②, 50, 88, 94)이며 나머지 35個 問項은 새로 導入된 問項이거나 QSCC II 分析結果 새로이 辨別力이 立證되어 太陰尺度의 問項으로서 價値가 認定된 問項 들이다. 結局 QSCC II의 太陰尺度에서 QSCC 問項이 包含된 것은 全體의 10% 程度이고 나머지 90% 程度는 새로 開發된 太陰尺度 問項이라 할 수 있다. 새로 開發된 問項들은 過去에 QSCC 分析에서 除外되었던 問項들을 再解釋하여 表現을 바꾸고 나서 辨別力이 높아 짐으로써 다시 採擇 되었거나, 太陰尺度가 아닌 다른 尺度였던 問項이 分析結果 太陰尺度로서 價値를 認定 받아 採擇 되었거나 原文을 通하여 새로이 開發 되었거나 또는 關聯 論文을 通하여 妥當度가 입증된 다른 設問紙에서의 問項들이다. 새로운 問項 35個(90%)에 該當하는 問項番號는(1-①, 2-①, 3-①, 4-③, 5-①, 6-①, 7-③, 7-④, 9-①, 10-①, 12-①, 13-①, 14-①, 15-①, 16, 21, 24, 26, 30, 39, 44, 45, 47, 48, 53, 61, 73, 74, 76, 85, 103, 110, 117, 118, 121)이며 새로운 問項중 體格 體型에 對한 問項은 7個의 問項(1-①, 2-①, 3-①, 4-③, 5-①, 6-①, 9-①)이고 이 結果에 따르면 太陰人의 體格 條件은 體格이 큰 便이고 뚱뚱하며 허리部位가 잘 發達하였고 목덜미 部位가 貧弱하며 骨格이 굵고 살이 썩 便이며 가슴이 넓고 잘 發達된 肥滿型으로 上體가 下體에 比하여 發達된 體格<sup>11)</sup>으로 걸음걸이는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分析結果 太陰尺度의 體格 問項에 點數가 다른 尺度 3個의 어떤 것보다도 클 境遇엔 基本點數 외에도 加算點 3點이 주어진다. 새로운 問項 中 病症에 對한 問項은 6個의 問項(10-①, 103, 110, 117, 118, 121)이다. 全體 問項에서 太陰尺度에 辨別力이 높은 것으로 認定되어 加重 價値로 1點을 더 주는 問項은 다음과 같다. “1-① 체격이 큰 편이다. 2-① 뚱뚱한 편이다. 4-③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5-① 골격이 굵고 살이 썩 편이다. 6-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 8-② 평소 손, 발이 따듯한 편이다. 9-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10-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 <少陰尺度>

問項 全體間의 相關係數로 表示되는 問項 適格 度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높은 問項은 “112 평소 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였고, 가장 낮은 問項은 “49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였다. QSCC II에서의 少陰尺度는 比較的 異質的인 內容의 問項으로 構成되어 全體 要因에 對한 信賴 度가 Cronbach's  $\alpha$  係數로 0.6319에 達하였는 바 앞에서도 言及하였 듯이 問項內容이 多様함을 알 수 있다.

QSCC II의 少陰尺度에 該當하는 問項 51個 가운데 QSCC 分析 後 少陰尺度로 採擇되었던 問項이 그대로 있거나 多少 修整된 表現으로 다듬어진 問項은 12個(8-①, 23, 30, 46, 51, 65, 72, 77, 89, 95, 96, 101)이며 나머지 39個 問項은 새로 導入된 問項이거나 QSCC II 分析結果 새로이 辨別力이 立證되어 少陰尺度의 問項으로서 價値가 認定된

問項들이다. 結局 QSCCⅡ의 少陰尺度에서 QSCC 問項이 包含된 것은 全體의 23% 程度이고 나머지 77% 程度는 새로 開發된 少陰尺度 問項이라 할 수 있다. 새로 開發된 問項들은 過去에 QSCC 分析에서 除外 되었던 問項들을 再解釋하여 表現을 바꾸고 나서 辨別力이 높아짐으로써 다시 採擇 되었거나, 少陰尺度가 아닌 다른 尺度였던 問項이 分析結果 少陰尺度로서 價値를 認定 받아 採擇 되었거나 原文을 通하여 새로이 開發 되었거나 또는 關聯 論文을 通하여 妥當도가 立證된 다른 設問紙에서의 問項들이다. 새로운 問項 39個(77%)에 該當하는 問項番號는(1-③, 2-③, 3-②, 4-④, 5-②, 6-②, 7-①, 7-②, 9-②, 10-②, 12-④, 22, 24, 27, 29, 33, 37, 38, 47, 49, 50, 52, 53, 56, 57, 59, 66, 73, 76, 81, 84, 87, 100, 105, 111, 112, 114, 116, 120)이다. 새로운 問項 中 體格 體型에 對한 問項은 6個의 問項(1-③, 2-③, 3-②, 4-④, 5-②, 6-②)이며, 이 結果에 따르면 少陰人의 體格 조건은 體格이 작고 마른便이며 엉덩이 部位가 잘 發達하였고 가슴 部位가 貧弱하며, 下體가 上體에 比해 發達되었고, 骨格이 작고 均衡이 잡혀 있으며, 가슴이 貧弱하고 구부정한 細長型으로 걸음걸이가 自然스럽고 얇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分析結果 少陰尺度의 體格問項의 點數가 다른 尺度 3個의 어떤 것보다도 큰 境遇엔 基本點數 外에도 加算點 3點이 주어진다. 새로운 問項中 病症에 對한 問項은 7個의 問項(10-②, 105, 111, 112, 114, 116, 120)이다. 全體 問項에서 少陰尺度에 辨別力이 높은 것으로 認定되어 加重值로 1點을 더 주는 問項은 다음과 같다. “ 1-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2-③ 마른 편이다. 3-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5-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 있다. 6-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8-① 평

소 손, 발이 찬 편이다. 9-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얇전하다. 10-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12-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81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96 말로는 서로 특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以上の 問項分析을 總括하여 QSCCⅡ의 構成은 平均 76.5% 程度가 새로운 尺度로 改編되어 있고 23.5% 程度만이 QSCC에서 原來 있던 問項이었다.

### 3. 各 尺度의 信賴度 測定

四象尺度의 內的一致度(internal consistency)<sup>12)</sup>는 Cronbach's  $\alpha$ 係數로 나타낼 때 Table 11과 같다.

QSCCⅡ는 QSCC의 內的一致度 (4個 尺度 모두 0.7155 以上)에 比하여 尺度別 內的一致度は 떨어지지만 보통 信賴도가 0.5 以上이면 信賴性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以上の 結果 信賴도가 立證된 것이며, QSCCⅡ는 各 尺度를 構成하고 있는 內容에 生理 뿐만 아니라 體格·病症 問項들이 追加되어서 多樣하게 構成되어 졌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說明할 수 있다. 이러한 異質的 問項을 追



加하므로써 辨別力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었다

#### 4. 年齡과 性別에 따른 小集團의 尺度別 點數의 記述統計<sup>13)</sup> (平均, 標準偏差)

QSCCII에 應答할 때에는 年齡과 性別에 따라 應答 比率이 差異가 있었는데 그 結果는 Table 12와 같다. 이 表는 年齡과 性別을 考慮한 標準點數의 換算資料가 된다.

#### 5. 四象尺度 點數의 男女 別 差異에 對한 變量分析

男女間에는 應答 內容에 差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意味 있는 程度의 差異를 보인다면 標準化 段階에서는 男女別로 標準點數에 差異를 두어

야 한다. 따라서 어느 尺度에서 統計적으로 어느 程度 差異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爲하여 變量分析을 實施하였던 바 그 結果는 Table 13과 같다. 各 尺度別 應答點數를 男女別로 나누어 그 平均(M)과 標準偏差(SD)를 求하고 어느 尺度에서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지를 보기 爲해 F값<sup>14)</sup>을 求하고 有意度(F probability)를 求하였는데 有意水準은  $P < 0.001$  以下の 水準으로 定하였다.

ANOVA 結果 少陰尺度에서  $F=59.96$ 으로  $P < 0.0001$  水準으로 男女 集團間에 意味 있는 差異가 보여 少陰尺度에서는 男女間에 應答하는 程度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太陽尺度和 太陰尺度는  $P < 0.001$ 水準에서 少陰尺度 다음으로 男女間에 差異가 있었다. 少陽尺度는 ANOVA 結果 男女間에 統計적으로 意味 있는 應答差異는 없었다.

Table 11. Number of Items and Reliability Coefficients of Four Constitutional Scales

Scale	Number of Item	Internal Consistency(Cronbach's $\alpha$ )
Tae-yang	24	0.5708
So-yang	39	0.5896
Tae-eum	39	0.5922
So-eum	51	0.6319

Table 12. Descriptive Statistics(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Raw Score of Four Constitutional Scales in Normative Sample Group - Based on Age and Sex Distinction

	Male							Female							Total N=1340
	10's N=71	20's N=133	30's N=173	40's N=137	50's N=100	60's N=51	Total N=665	10's N=117	20's N=150	30's N=137	40's N=129	50's N=90	60's N=52	Total N=675	
Tae-yang	8.31 (3.09)	7.68 (3.36)	7.62 (3.13)	7.72 (3.31)	7.60 (3.18)	7.78 (2.93)	7.74 (3.20)	7.18 (2.78)	7.43 (2.91)	6.32 (2.91)	6.87 (3.23)	7.84 (3.47)	7.31 (2.48)	7.10 (3.03)	7.42 (3.13)
So-yang	19.08 (7.31)	17.70 (7.77)	14.96 (6.33)	13.94 (6.64)	13.91 (6.31)	13.86 (6.03)	15.32 (6.93)	18.39 (6.46)	17.53 (6.72)	13.96 (6.65)	12.74 (6.32)	13.03 (6.32)	13.69 (6.01)	15.15 (6.85)	15.32 (6.93)
Tae-eum	15.75 (5.55)	15.26 (5.77)	16.45 (5.98)	16.26 (6.11)	15.68 (5.69)	15.02 (4.97)	15.87 (5.81)	14.25 (5.10)	14.43 (5.18)	13.63 (4.97)	14.98 (5.77)	16.51 (6.94)	16.44 (5.96)	14.77 (5.63)	15.32 (5.74)
So-eum	25.46 (9.24)	25.71 (9.28)	24.58 (9.58)	25.03 (9.77)	26.56 (9.36)	25.8 (9.09)	25.39 (9.45)	27.16 (8.93)	28.94 (9.44)	32.04 (9.77)	30.12 (10.04)	28.09 (10.86)	30.79 (11.90)	29.52 (10.04)	27.47 (9.96)

Table 13. Analysis of Variance on the Score of Four Scales - Based on Sex Distinction

	Total (N=1340)	Male (N=665)	Female (N=675)	F
Tae-yang	7.42 (3.11)	7.74 (3.20)	7.10 (3.03)	14.05 *
So-yang	15.32 (6.93)	15.50 (7.01)	15.15 (6.85)	0.86 NS
Tae-eum	15.32 (5.72)	15.87 (5.81)	14.77 (5.63)	12.40 *
So-eum	27.47 (9.75)	25.39 (9.45)	29.52 (10.04)	59.96 **

\* P<0.001 by ANOVA. \*\* P<0.0001 by ANOVA.  
NS no significance by ANOVA.

## 6. 四象尺度 點數의 年齡別 差異에 對한 變量分析

QSCCⅡ의 應答에 年齡別로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 만약 意味 있는 差異가 있다면 標準化 段階에서 年齡別로 標準點數에 差異를

두기 爲하여 變量分析을 實施 하였던 바 그 結果는 Table 14와 같다. 各 尺度別 應答 點數의 差異를 年齡別로 나누고 그 平均(M)과 標準偏差(SD)를 求하고 어느 尺度에서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爲해 F값을 求하고 有意 度를 求하였는데 有意水準은 P<0.05 以下の 水準으로 定하였다.

ANOVA 結果 少陽尺度에서는 F=25.58 로 P<0.05 水準에서 年齡別로 意味 있는 差異가 보여 少陽尺度에서는 年齡間에 應答하는 程度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個別 差異를 알아보기 爲하여 Duncan Test를 해 본 結果 少陽尺度에서 特別히 10代와 30, 40, 50, 60代間에 統計的으로 意味 있을 程度로 10代들이 많은 點數를 받았다. 그리고 20代와 30, 40, 50代 間에도 統計的으로 意味 있는 程度로 20代들의 點數가 높았다. 그리고 30代와 40代 사이에도 意味 있는 差異가 있을 程度로 30代에서 높은 點數를 받았다. 少陰尺度에서도 50代의 應答點數가 20代보다 높았으나 統計的으로 意味가 있는 程度의 差異는 아니었다.

Table 14. Analysis of Variance on the Score of Four Scales - Based on Age Group (\* p<0.05.)

	Total (N=1358)	10's (N=189)	20's (N=284)	30's (N=314)	40's (N=272)	50's (N=194)	60's (N=105)	F	Duncan Test
Tae-yang	7.41 (3.13)	7.60 (2.94)	7.55 (3.12)	7.04 (3.09)	7.34 (3.34)	7.65 (3.31)	7.50 (2.70)	1.42	
So-yang	15.31 (6.93)	18.60 (6.81)	17.60 (7.21)	14.59 (6.53)	13.40 (6.51)	13.43 (6.27)	13.71 (5.97)	25.58 *	10's>30,40,50,60's 20's>30,40,50,60's 30's>40's
Tae-eum	15.29 (5.75)	14.79 (5.31)	14.80 (5.47)	15.15 (5.71)	15.64 (6.03)	16.05 (6.28)	15.64 (5.52)	1.69	
So-eum	27.18 (9.83)	26.31 (8.90)	27.15 (9.33)	27.59 (10.18)	27.22 (10.05)	26.98 (9.98)	27.81 (10.86)	0.51	50's>20's

## 7. 年齡과 性別에 따른 差異를 複合的으로 考慮했을 때 나타나는 各 尺度의 有意性 檢討

各 尺度別로 年齡과 性別 各各에 따른 應答程度의 變化와 그것을 複合的으로 考慮했을 때 應答程度의 變化를 알아보기 爲해서, F값을 求하고 그 有意성을 檢討해 보았다. 그 結果 年齡과 性別에 따라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15).

ANOVA 結果 太陽尺度에서는  $P < 0.05$  水準에서 有意性 있는 年齡間의 差異를 보였고, 性別間의 差異를 分析한 結果 F값이 11.82로서  $P < 0.001$  水準에서 有意性 있는 性別間의 差異를 보였는데 男子가 女子보다 太陽尺度 問項에 應答하는 頻도가 높았기 때문이다(Table 13 參考). 少陽尺度에서는 年齡間에 差異에서만  $P < 0.0001$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意味 있는 差異가 있었는데 男女 公히 年齡이 어릴수록 少陽尺度에 反應하는 頻도가 많았다(Table 14 參考). 太陰尺度에서는 男女間에 差異가  $P < 0.05$  水準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는데 男子가 女子보다 平均이 높았다. 또 太陰尺度가 男女別로도 年齡 代에 따라 또 差異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年齡이라 하더라도 男女別로 差異가 있는지 등을 複合的으로 考慮하여 分析해 보면 各各의 差異가 모두  $P < 0.05$  水準 程度로 統計的 有意성을 보이고 있다. 少陰尺度에서는 男女間의 差異가  $P < 0.0001$  水準에서 意味 있는 差異가 있었는데 女子가 男子보다 少陰尺度에 應答하는 頻도가 높았기 때문이다(Table 13 參考). 또 少陰尺度가 性別에 따라 年齡別로 差異가 있는지 또 年齡 代에 따라 性別의 差異가 있는지를 分析해 본 結果  $P < 0.05$  水準에서 意味 있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Table 15. Significance of F-ratio of Four Scales by ANOVA with All Effects Applied

		F	sig of F
Tae-yang	age	2.25*	0.047
	sex	11.82**	0.001
	†	1.97	0.081
So-yang	age	25.96***	0.000
	sex	3.07	0.080
	†	0.24	0.947
Tae-eum	age	1.61	0.154
	sex	4.33*	0.038
	†	3.59*	0.003
So-eum	age	1.14	0.340
	sex	48.70***	0.000
	†	3.31*	0.006

† indicates 2-way interactions (age & sex).

\*  $P < 0.05$ , \*\*  $P < 0.001$ , \*\*\*  $P < 0.0001$ .

## 8. 專門醫에 依해 診斷된 集團의 各 體質尺度別 原點數에 따른 變量分析 및 事後檢證

專門醫에 依하여 診斷된 集團들에 對하여 새로 製作된 QSCCⅡ를 가지고 設問 調査한 結果 四象 尺度別 原點數에 따른 變量分析 및 事後檢證 結果를 Table 16에 提示하였다.

## 9. 標準化

앞에서의 資料를 가지고 다시 標準化하여 T點數에 따른 變量分析을 하였는데 그 結果는 Table 17과 같다.

以上の 分析 結果에서는 QSCC의 妥當化 研究에서 太陽尺度和 太陰尺度만이 有意性 있는 것으로 나타난 結果에 比하여 QSCCⅡ에서는 太陽尺度 少陰尺度를 包含하여 네 가지 尺度 모두가 有意性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Analysis of Variance on the Raw Score of Four Scales in the Group Classified by a Specialist

Raw Score of 4 scales	TYI N=21	SYI N=50	TEI N=98	SEI N=96	F	Duncan Test
Tae-yang	9.48 (3.27)	7.98 (3.20)	8.18 (3.08)	6.61 (3.08)	7.07*	TYI>SEI, SYI>SEI TEI>SEI
So-yang	15.10 (6.80)	20.22 (8.14)	13.32 (5.45)	14.39 (7.26)	12.06*	SYI>TYI·TEI·SEI
Tae-eum	18.19 (7.03)	12.76 (4.23)	19.86 (6.41)	12.07 (4.23)	40.51*	TYI>SYI·SEI, TEI>SYI·SEI
So-eum	27.19 (11.50)	25.84 (10.17)	24.23 (9.07)	34.56 (11.44)	17.62*	SEI>TYI·SYI·TEI

\* P<0.0001.

TYI indicates Tae-yang In.  
TEI indicates Tae-eum In.

SYI indicates So-yang In.  
SEI indicates So-eum In.

Table 17. Analysis of Variance on the T- Score of Four Scales in the Group Classified by a Specialist

T - Score of 4 scales	TYI N=21	SYI N=50	TEI N=98	SEI N=96	F	Duncan Test
Tae-yang	58.76 (13.18)	52.72 (12.91)	53.54 (12.44)	47.20 (12.45)	7.07*	TYI>SEI, SYI>SEI TEI>SEI
So-yang	52.34 (11.32)	60.87 (13.54)	49.37 (9.07)	51.15 (12.08)	12.06*	SYI>TYI·TEI·SEI
Tae-eum	52.93 (11.79)	43.82 (7.10)	55.73 (10.76)	42.67 (7.09)	40.51*	TYI>SYI·SEI, TEI>SYI·SEI
So-eum	46.98 (9.67)	45.84 (8.56)	44.49 (7.63)	53.17 (9.62)	17.62*	SEI>TYI·SYI·TEI

\* P<0.0001. The abbreviations are used as Table 16.

## 10. 判別分析 結果와 正確判別率

體質診斷을 하기 爲해서 새로 製作된 QSCC II의 四象體質 尺度들이 分類 正確率을 얼마만큼 增加시켜 주었는지 檢討해 보고 QSCC II를 利用하면 專門醫가 診斷한 四象體質 總 244名(265名 中 太陽人 21名 除外)과 얼마나 一致하는지를 알아 보기 爲하여 判別 分析<sup>15)</sup>한 結果를 Table 19에 提示하였다. 모든 資料는 分析에 들어가기 前에 判別分析 過程에서 導出된 判別方程式을 適用하였

다. 2個의 方程式 모두 Wilks' Lambda<sup>16)</sup>,  $\chi^2$ (chi-square)<sup>17)</sup>, 自由度(df)<sup>18)</sup>를 考慮한 有意度(Sig)<sup>19)</sup>가 모두 0.0001로서 統計적으로 有意성이 認定되는 判別方程式 들이라 할 수 있다. 判別方程式1. 은 eigen value<sup>20)</sup>로 보아 判別方程式2. 보다 좋은 判別函數로 생각된다.

判別函數와 各 尺度間의 關係를 통해서 各 函數에 크게 寄與하는 尺度가 무엇인지 알아 본 結果는 Table 18에 提示하였다. 이 表를 살펴보면 判別函數 1은 太陰尺度와 높은 相關關係를 보였고

判別函數2는 少陽尺度, 少陰尺度와 높은 相關 關係를 보였다. 즉 少陽·太陰·少陰 尺度는 集團의 區分에 影響을 미치는 意味있는 變數로 作用하여 QSCCⅡ는 本來의 意圖에 附合되는 尺度間의 區分이 存在함을 알 수 있다.

導出된 判別函數가 體質을 正確히 判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平均 正確判別率이 70.08%이고 特히 太陰人을 正確히 判別할 確率은 74.5%, 少陰人을 正確히 判別할 確率은 70.8%로 높은 水準이다. 少陽人을 正確하게 判別할 確率은 60.0%로 比較的 未洽하여, 結局 少陽人에 對한 正確判

別率이 平均正確判別率을 多少 낮추는 要因으로 作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太陽人은 集團의 事例數가 적어서 規準(= Norms)을 構成할만큼의 크기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判別分析에서 除外되었다.

### 11. QSCCⅡ로 診斷한 標本集團의 體質分布

標本集團을 QSCCⅡ로 診斷하여 본 體質과 그것의 性別 分類를 Table 20에 提示하였다.

Table 18. Correlations Between Discriminating Variables an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Scale	Func1	Func2
So-yang	-0.17	0.72*
Tae-eum	0.72*	-0.14
So-eum	-0.40	-0.52*

Table 19. Discriminant Analysis Results of the T-Score of the QSCCⅡ's Sasang Constitutional Scales

Discriminant Function 1= -0.7955-0.0244×SYT+0.1108×TET-0.0732×SET							
Discriminant Function 2= 1.0907+0.0782×SYT-0.1750×TET-0.0753×SET							
Fcn	Eigenvalue	Wilks' Lambda	Chi-square	df	Sig		
1*	0.9791	0.409611	214.211	6	0.0000		
2*	0.2335	1.810679	50.372	2	0.0000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evaluated at group means  (Group centroids)		
		So-yang	Tae-eum	So-eum			
Group2 So-yang	50	30 (60.0%)	8 (16.0%)	12 (24.0%)	GROUP	Func1	Func2
Group3 Tae-eum	98	12 (12.2%)	73 (74.5%)	13 (13.3%)			
Group4 So-eum	96	23 (24.0%)	5 (5.2%)	68 (70.8%)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 <b>70.08%</b>							
		So-yang In		-0.51	0.91		
		Tae-eum In		1.18	-0.09		
		So-eum In		-0.94	-0.38		

SYT indicates T-score of Soyang scale TET indicates T-score of Tae-eum scale SET indicates T-score of So-eum scale

Table 20. Distribution of Constitution Classified by the Standardized QSCC II in Normative Sample Group

		So-yang In	Tae-eum In	So-eum In	Total
Male	Frequency	105	219	200	524
	%	20.0	41.8	38.2	
Female	Frequency	118	238	210	566
	%	20.8	42.0	37.1	
Total	Frequency	223	457	410	1090
	%	20.5	41.9	37.6	

#### IV. 總括 · 考察 및 提言

QSCC II를 標準化하는 過程에서 나온 段階別 結果에 對한 理論的 意味과 問題點을 알아보고 그 結果들을 서로 關聯 지어 分析했을 때의 相關性 等を 考察해 본 다음, 以前에 研究 되었던 QSCC 關聯 論文의 結果들과 比較 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QSCC II 應答結果의 階層別 差異에 根據한 標準化 研究의 必要性

總 問項數 가운데 76.5%의 問項을 새로운 內容으로 바꾸어서 만든 QSCC II에 對한 應答 結果를 一見해 보면 男女 公히 太陽尺度에서 應答하는 숫자가 적다. 이것은 太陽尺度로 採擇된 問項의 數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이 가운데 男子는 女子보다 太陽·少陽·太陰尺度에 많이 應答하고, 少陰 尺度에 적게 應答하였다. 또 女子는 男子보다 少陰尺度에 많이 應答하였다. 以上의 結果를 統計的으로 分析해 보면, 太陽·太陰·少陰 尺度에서 男女間의 應答에 有意味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3).

같은 方法으로 分析하면 年齡에 따른 尺度別 差異도 特히 少陽尺度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볼 수 있다. 少陽尺度에서는 年齡이 어릴수록 少陽尺度

에서 높은 點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이 어릴수록 밝고 活潑한 모습을 띄고 있음이 反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少陰尺度에서는 50代가 20代보다 높은 點數를 받는 것으로 보아 消極的이고 조용한 50代의 모습이 反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結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少陽人의 象은 10代의 밝은 모습과 類似하며 少陰人의 象은 50代의 消極的이고 조용한 모습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著者의 QSCC 妥當化 研究에서 女子가 除外되었던 問題와 章21)의 研究에서 提示된 部分을 考慮할 때, 위와 같은 階層間의 差異는 QSCC II 標準化 段階에서 採點하는 方法에서 반드시 反映되어야 할 問題였다.

以上에서 考察해 본 內容에 따르면 問項數 年齡과 性別에 따른 基準을 달리하는 것이 必要할 것으로 思慮된다.

##### 2. QSCC II 應答結果의 階層別 差異에 對한 統計的 有意性 檢討 및 考察

그러한 作業의 妥當性을 檢討하기 爲하여 F檢證<sup>22)</sup>을 하였다. 太陰尺度和 少陰尺度에서는 年齡과 性別 各各의 差異를 複合的으로 檢討해 본 結果 P<0.05 水準에서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太陽과 少陽尺度에서는 差異는 있었

으나 統計的으로 意味가 있는 差異는 없었다. 太陽尺度에서는 年齡과 性別을 複合的으로 考慮할 때의 差異는 없었으나 年齡別로는 意味있는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性別에서도 意味 있는 差異를 볼 수 있었다. 少陽尺度에서는 年齡間에서만 意味 있는 差異를 볼 수 있었다. 太陰, 少陰尺度에서는 性別만으로도 意味있는 差異를 보였다. 즉 太陽, 太陰, 少陰尺度가 性別로 意味 있는 差異를 보였고, 太陽 少陽尺度만이 나이에 따른 意味 있는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5). 이러한 分析結果는 太陽尺度·少陽尺도와 太陰尺度에서는 男子들이 應答을 하는 比率이 높았고 女子는 少陰尺度에서 男子보다 높은 點數를 받았던 結果 (Table 13)에서 이미 豫見되었던 바이다. 그런데 少陽尺度에서 年齡別로 어떤 差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점점 少陽尺度에 應答하는 比率이 많음을 알 수 있다(Table 14). 以上の 結果를 考察하면 問項數의 差異를 考慮하여 同一한 條件을 만들고 그 때의 點數를 計算하고 그 값을 比較하여야만 正確한 體質診斷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差異를 考慮한 標準點數값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며, 年齡과 性別 標準點數 값도 따로 만들어서 體質判別에 適用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3. 規準(Norms)마련을 爲한 記述統計 結果 分析

本論文은 QSCCⅡ의 標準化 研究로서 以上과 같은 여너 가지 變因 (問項數 年齡 및 性別 等)을 考慮한 標準點數를 利用 그 規準(Norms)을 만드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過程을 通하여 QSCCⅡ의 標準化 作業을 着手하였다. 우선 設問調查의 結果를 問項

數, 年齡 그리고 性別의 差異를 考慮한 標準點數 (=T點數)<sup>23)</sup>로 換算할 수 있는 資料로 만들기 爲하여 記述統計를 利用해 整理 하였는데 이러한 換算方法을 利用하면 本 設問紙에서 問項數가 많고 적고의 影響 또한 排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標準化에 따라서 QSCCⅡ의 應答點數에 對한 解釋은 問項數·年齡과 性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外의 變因(職業·學力·結婚狀態·血液型 等)에 따른 應答 差異는 分析結果 意味있는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標準化 過程에서는 問項數·年齡 그리고 性別 만을 考慮하였다.

### 4. QSCCⅡ의 準據妥當度 檢證을 爲한 變量分析 結果에 對한 考察

資料收集 整理에 依한 記述統計 過程은 QSCCⅡ 標準化 作業의 첫 段階이고 그 다음으로 QSCCⅡ의 妥當度를 檢査하기 爲한 作業으로서 專門醫가 診斷한 사람에게 設問調查를 實施한 後 이때 나온 答案에 對하여 專門醫가 診斷한 體質과 尺度와의 關係를 分析하였다. 우선 事後檢證을 하기 爲하여 QSCCⅡ 答案의 原點數에 따른 變量分析을 해 본 다음 原點數를 앞에서 整理된 資料를 利用하여 換算한 標準點數(=T點數)를 가지고 다시 變量分析을 하여 그 두 가지 結果를 比較해 보았다. 이때 各 體質 集團이 어느 尺度에서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爲하여 F檢證을 해보고 Duncan test를 사용하여 各 尺度別로 基準 妥當度를 求해 보았다. 이때에 統計的 意味는  $P < 0.05$ 水準으로 定하였다. 이러한 過程을 通하면 QSCCⅡ 妥當度를 알 수 있고 標準化 作業의 結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T點數의 變量分析 結果 太陽人 集團이 다른 集團에 비해 가장 큰 離脫點數를 보인 尺度는 太陽

尺度이고 또 太陽人 集團은 太陰尺度에서도 比較的 다른 尺度보다 많은 點數를 받고 있다. 少陽人 集團이 다른 集團에 비해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尺度는 少陽尺度이고 또 少陽人 集團은 太陽尺度에서도 比較的 높은 點數를 받았다. 太陰人 集團이 다른 集團에 비하여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尺度는 太陰尺度이고 또 太陰人 集團은 太陽尺度에서도 比較的 높은 點數를 받았다. 少陰人 集團이 다른 集團에 비하여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尺度는 少陰尺度이고 또 少陰人 集團은 少陽尺度에서도 比較的 높은 點數를 받았다. 이 結果에서 보면 診斷된 體質들의 應答 方向이 QSCCII에 收錄된 問項들의 本來 意圖와 比較的 正確하게 一致하고 있다. 그리고 豫測했던 대로 尺度間의 基準 妥當度는 물론 體質集團까지도 모두 有意味한 差異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QSCCII의 네 가지 尺度는 모두 診斷辨別力이 認定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結果를 각 尺度別로 보면 太陽尺度에서는 太陽人 集團이 少陰人 集團 보다 높은 點數를 받았고, 少陽人 集團이 少陰人 集團보다 높은 點數를 받았으며 그리고 太陰人 集團이 少陰人 集團보다 높은 點數를 받아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少陽尺度에서는 少陽人 集團이 太陽人·太陰人·少陰人 集團보다 높은 點數를 받아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太陰尺度에서는 太陽人 集團이 少陽人, 少陰人 集團보다 높은 點數를 받아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고 또한 太陰人 集團이 少陽人 少陰人 集團보다 높은 點數를 받아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이러한 結果를 미루어 볼 때 QSCCII는 四象 體質을 分類할 수 있는 可能性이 QSCC에 비하여 상당히 向上되었음<sup>24)</sup>을 豫測할 수 있다. 따라서 體質 分類 設問

紙로서의 可能性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以上과 같은 作業을 通하여 QSCCII는 標準化 되었다. QSCCII의 標準化한 結果 QSCCII를 利用하여 體質診斷을 하면 判別正確率을 높일 수 있다고 豫測해 볼 수 있다.

## 5. 判別分析 結果에 對한 考察

標準化된 QSCCII를 가지고 體質을 判別한 結果의 內容과 專門醫에 依해 體質을 診斷받은 사람들 間에 一致率을 調査해 봄으로써 QSCCII를 利用하여 體質을 診斷할 때의 效果를 分析해 보았다. 이 때 李<sup>25)</sup>의 研究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體質 尺度 別 原點數 만으로 體質을 診斷할 때보다는 以前의 모든 設問紙 研究 論文에서 平均 正確判別率을 높일 수 있는 方法임이 立證된 判別方程式을 利用한 體質 判定 方式을 使用하여 判別分析을 함으로써 體質을 診斷 하였다. 判別方程式을 利用한 判別分析 方法은 다음과 같다. 우선 採點할 때 辨別力이 높다고 나타난 問項에는 加重值(問項別로 1點 또는 3點을 加算)를 賦與하여 採點을 한 다음 問項數·年齡과 性別을 考慮한 T點數로 換算하여 이것을 資料로 判別方程式에 適用하고 그 結果를 集團中央值에 比較해 보아 體質을 診斷한다. 그 結果는 아래와 같다.

少陽人으로 診斷 받은 사람이 QSCCII에 依해서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60.0% 太陰人으로 診斷 받은 사람이 太陰人으로 診斷될 確率은 74.5% 少陰人으로 診斷 받은 사람이 少陰人으로 診斷될 確率은 70.8%로 나타났다. 特히 QSCCII의 太陰人과 少陰人의 鑑別力은 各各 70% 以上의 水準으로서 比較的 높았으나 少陽人에 對한 鑑別力이 60.0%로 낮은 便이었다. 結局 QSCCII는 70.08%를 正確히 判別했음을 보여 주었다. 3個



集團의 偶然確率 33.33(太陽人 集團을 包含하면 25%, 診斷된 事例數를 勘案하면 診斷된 사람 間에서의 偶然確率は 37%)에 比해 約 37% 가량의 增進을 보여 QSCCII가 體質 分類를 爲한 客觀的 設問檢査로서 有用性이 높음을 示唆하였고 四象 體質 分類를 爲해 充分한 資料 提供의 價値가 있음이 立證되었다.

本 QSCCII의 調査 및 分析過程에서는 專門醫에 依해서 太陽人으로 分類된 事例가 있기는 하였으나 規準(=Norms)을 마련하기에는 그 數가 不足하므로 太陽人에 對한 內容은 除外되었으며 太陽人을 包含하여 QSCCII를 標準化하는 作業은 太陽人 集團에 對한 標集을 많이 늘려서 追後에 研究해 보아야 할 課題이다.

또한 判別函數와 QSCCII의 各 尺度別 相關關係의 結果를 考察해보면 QSCCII는 各 尺度가 크게 體質診斷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問項들로 構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0). 이것은 QSCC에서 少陰尺度가 體質診斷에 重要한 役割을 하면서도 實際 少陰人 判別에 크게 寄與하지는 못하는 尺度였으므로 各 尺度別로 問項 補完이 要求되었던 바 이러한 問題를 QSCCII에서는 解決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參考로 標準化된 QSCCII에 依해 體質分類된 標本集團의 結果를 보면 男性은 少陰·太陰·少陽 順으로 많았고 女性은 太陰·少陰·少陽 順으로 많았으며 全體의으로 볼 때 太陰(41.9%) 少陰(37.6%) 少陽(20.5%)의 順序로 나타났는데 위의 結果가 東醫壽世保元에서 東武가 言及한 比率과 差異를 보이는 것은 標本集團이 事例數를 더 늘려야 比較 될 수 있는 價値가 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이 結果를 考察해 볼 때 少陽尺度에 對한 修整

補完 作業을 할 境遇에는 平均 正確判別率을 더욱 向上시킬 수 있을 것으로 豫想해 볼 수 있다. 이러한 豫想은 QSCC에서 正確判別率이 特히 未洽했던 것으로 나타난 少陰尺度를 보다 深度 있게 研究하여 原文翻譯을 달리하고 大幅 修整하고 補完한 表現을 바꾸었던 結果 QSCC에서는 48.1%였던 正確判別率이 QSCCII에서는 70.8%로 上昇된 結果에 根據하여 妥當性 있는 作業이 될 것으로 思慮된다.

## 6. 鑑別診斷 方法에 對한 考察

다음으로 以上の 研究에서 나타난 結果를 根據로 體質 判別의 誤謬를 다시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을 考察해 볼 수 있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專門醫의 體質 判別 正確率을 100%라고 假定할 때 設問紙 上에서 少陽人이라 하더라도 實際로는 少陰人이었던 境遇가 24%이고, 設問紙上으로 太陰人이라 하더라도 實際로는 少陽人일 確率이 16%이고, 設問紙上으로 少陰人이라 하더라도 實際 少陽人일 境遇가 24%나 되므로 設問紙를 實際 臨床에서 使用할 때 醫師의 Impression과 設問紙上의 診斷이 差異를 보이는 患者에 對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方法으로 鑑別診斷을 해 볼 수 있겠다.

첫째 方法을 위에서 研究한 設問紙의 頻繁한 誤謬의 境遇를 例로 들어 說明해 보면, 少陽人과 少陰人의 鑑別은 table 17에서 提示된 Duncan test 結果와 같이 太陽尺度 T點數가 높거나 少陽尺度 T點數가 높으면 實際로 少陽人이 可能性이 높고 少陰尺度의 T點數가 높으면 少陰人일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해 보는 式의 方法이다. 또 하나의 例로 太陰人과 少陰人의 鑑別診斷은 太陽尺度 T點數가 높거나 太陰尺度 T點數가 높으면 太

陰人이고, 少陰尺度의 T點數가 높으면 少陰人으로 判斷해보면 鑑別診斷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둘째 方法은 判別分析 後 各 體質別로 尺度間 差異가 어떠한가를 보아서 그 Profile을 構成하고 群集分析하여 鑑別 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專門醫가 鑑別한 體質集團의 QSCCII 反應을 尺度別 T點數로 換算하여 分析하고 各各의 體質에 따라 群集 分析을 하면 비슷한 type을 묶어서 몇 가지 Profile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어떠한 體質의 어떠한 profile type이 QSCCII가 診斷한 內容과 가장 一致하는가를 보아 各各의 profile別로 判別 正確率을 따로 따로 計算해 보고 QSCCII의 結果와 一致率이 떨어지는 profile 類型이 結局 判別分析 結果 混同되는 集團에 該當될 것으로 斟酌해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方法을 利用하여 QSCCII에서의 判別 誤謬를 解決하여 混同되는 두 가지 體質을 分類할 수도 있겠다. 例컨데 QSCCII가 少陽人이라고 診斷한 境遇 實際로는 少陰人일 確率이 24%라면 그 사람의 profile를 그려보아 典型的인 少陽人 profile 類型이라면 少陽人이라고 診斷하고, 一致率이 떨어지는 安定性이 없는 profile 類型이라면 그 體質이 少陰人일 確率이 높다고 判斷하는 式으로 應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profile이 各 體質別로 2가지로만 나타난다면 四象 醫學에서 말하는 表裏病證 또는 寒熱의 區別과의 聯關性을 研究하여 臨床에 적용해 봄직도 하다고 思料되므로 이에 對한 繼續的인 研究가 期待된다.

體質이 混同되는 被檢者를 體質 鑑別하기 爲한 세 번째 鑑別診斷 方法으로는 이미 準據妥當度가 立證된<sup>4,22,26</sup> MBTI 또는 16PF를 追加로 해보게 하여 MBTI와 16PF上에서 各 體質 尺度別로 有意한 差異를 보이는 問項을 찾아보아 그 鑑別에

應用해 볼 수 있다. 例를 들자면 內向性이 높으면 少陰人으로 判別하는 式으로 鑑別診斷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에 對한 研究는 더욱 進行 되어야하고 實際로 그러한 鑑別이 有用한가 하는 것은 그 後에나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새로 製作된 QSCCII와 MBTI<sup>26</sup>, 16PF<sup>27</sup>의 準據妥當化 研究를 通하여 群集 分析한 profile 가운데 불안정한 profile type을 다른 體質과 鑑別하기 爲하여 MBTI 16PF를 準據로 鑑別 診斷해 보는 努力과 그에 對한 研究가 期待된다.

## 7. 本 研究의 限界性

本 研究의 限界點을 考察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要約된다.

첫째, 本 研究에서 體質을 診斷받은 사람이 特定 大學 病院의 外來患者들 만으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病院에 오지 않는 다른 階層 集團의 特性은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本 研究의 結果가 四象人의 特性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多少 限界가 있다.

둘째, 本 研究에서 平均 正確判別率의 統計的 意味는 높은 便이지만 滿足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事例數가 다소 적어서 인지, QSCCII 自體가 各 體質의 特性을 測 수 있는 能力이 限界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問題가 있는 것 인지는 좀더 研究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 8. 提 言

끝으로 本 研究 過程에서 導出된 問題의 解決을 爲한 研究와 本 研究 以後에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提示될 수 있는 後續 研究課題를 要約하여 提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既存에 研究된 16PF나 MBTI 等 다른 設問樣式의 導入에 依해 診斷正確率을 높이고 客觀性을 確保하는 研究가 繼續 되어야겠다.

둘째, 本 研究에서는 中學生 以上을 標集하였으나, 어린이를 爲한 設問紙 修整과 標準化 作業이 必要하다.

셋째, 準據資料로서 診斷을 받은 集團을 各 病院別로 擴大하고 環境別·職業別·生活水準別로 多樣化된 準據資料가 必要하다.

넷째, 韓醫學의 學科別로 QSCC II의 活用 可能性의 探索이 必要하다.

다섯째, 少陽尺度에 對한 補完研究가 要望된다.

여섯째, 太陽人의 數가 規準을 마련할 만한 크기가 될 수 있도록 標本集團의 數를 늘려서 太陽人을 包含한 標準化 研究가 進行되어야 한다.

일곱째, 判別分析에 依한 鑑別診斷, 群集分析에 依한 鑑別診斷, 다른 準據檢査를 利用한 鑑別診斷 方法에 對한 研究가 要望된다.

여덟째, 標本集團을 늘려 環境, 經濟 與件, 職業, 生活 水準, 地域 等等의 多樣한 變因에 따른 應答點數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求하여 變量分析 함으로써 標準化 點數에 反映되는 條件을 조금 더 具體化하여 個個人의 모든 條件을 滿足 시킬 만한 標準化 研究가 必要하다.

아홉째, 群集分析을 통해 表病證·裏病證 또는 寒熱의 區分 까지도 設問調查 上으로 區分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한 研究가 期待된다.

열째, 本 研究 結果에 나타난 平均 正確判別率 70.08%는 專門醫에 依한 體質診斷正確率을 100%라고 假定했을 때 QSCC II의 結果와 一致되는 程度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臨床에서 實際로 持續的인 藥物治療나 鍼治療 後에 證明된 體質과 어느 程度 一致되는 가에 對한 研究 設計및 그에 對한

研究 方法 開發이 進行 되어야 한다.

## V. 結論

著者は 四象體質 診斷의 客觀的인 基準이 되고 臨床的으로 活用이 可能한 四象體質分類檢査의 道具를 만들고 이 道具를 利用하여 體質 診斷을 할 때 必要한 客觀的 指標를 提示 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를 만든 다음 이를 各 階層(年齡·性·學力·結婚狀態·職業·血液型·生活水準別 階層)에 高르게 適用할 수 있는 客觀的 指標를 提示하기 爲하여 統計處理에 依한 標準化 作業을 하였다.

以上の 研究를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이 導出 되었다.

1) 各 體質別 尺度의 內의 一致度는 0.5708 ~ 0.6319로서 設問紙 構成에 體格과 體型을 包含한 多樣한 要因이 追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檢査紙의 各 尺度는 變量分析 結果 體質別로 有意한 差異가 있으므로 檢査紙의 問項은 診斷判別力이 認定되는 問項들로 構成되어 있음을 確認하였다.

3) 檢査紙의 應答方向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 가지 變因 가운데 年齡·性別 그리고 問項數 등이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本 研究에서는 以上の 變因을 考慮한 規準(Norms)을 標準化 資料로 提示 하므로써 檢査紙에 依한 體質診斷의 客觀的 指標를 마련하였다.

5) 檢査紙는 年齡과 性別에 關係없이 高르게 適用시킬 수 있다.

6) 檢査紙에서 새로 構成된 尺度들로 判別分析을 한 結果 平均 判別正確 率은 70.08%였다. 이

結果는 QSCC의 妥當化 研究에서 보인 平均 判別 正確率 55.56%에 比하면 比較的 높은 分類正確率 을 보이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7) 檢査紙의 네 가지 尺度들은 以前의 檢査紙에 比하여 高르게 體質診斷에 寄與함을 알 수 있었다.

8) 檢査紙는 分析結果 以前의 檢査紙들 보다 四象體質 診斷에서 正確率 向上, 差別化된 階層別 體質 診斷 方法의 提示에 依한 客觀性 確保 等の 問題點을 改善 할 수 있었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새로 開發되어 標準化된 QSCCⅡ는 多少의 制限은 있으나 臨床·相談 및 實驗研究에서 體質 診斷을 할 때 客觀的인 體質 診斷 道具로서 利用 價値가 認定되며 四象體質分類 의 客觀的 基準으로서도 그 價値가 認定된다.

## 參 考 文 獻

1. Isabel Briggs Myers, Mary H. McCaulley : M BTI 開發과 活用, 韓國心理 研究所, 서울, PP.3 03-305, P.315, 1995.
2. Marija J. Norusis : Advanced Statistics, Chicago, SPSS Inc., pp.1-39, 1986.
3. Marija J. Norusis : SPSS/PC, Chicago, SPCC Inc., pp.153-175, 1986.
4. 高炳熙 : 四象體質別 性格要因分析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Vol.14, No.2, 1993.
5.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에 對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9號, 1985.
6.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 方法論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3號, 1987.
7. 權英植 : 四象鑑別法에 對하여, 醫林 97호, 1973.
8. 金文星 : 四象體質鑑別法과 經驗方公開, 大韓韓醫學會報2號, pp.40-41, 1966.
9. 金善豪 : 四象體質分類檢査 (QSCC)의 妥當化 研究, 慶熙大學教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2.
10. 金樹凡 : 體質鑑別을 위한 專門家 시스템의 知識베이스 構築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11. 김재환 등 : Luria-Nebraska 神經心理檢査의 韓國版 標準化 研究Ⅱ 精神健康 研究 第 9集, pp.80-91, 1990.
12. 金完석·손명자 : 心理檢査論, 율곡출판사, 서울, pp.46-53, pp.104-109, p.115, pp.123-131, pp.13 8-139, p.144, pp.147-153, 1995.
13. 羅基成 : 四象鑑別과 體質鍼, 生藥과 韓醫藥 3 0號, 31號, 1978.
14. 朴爽彦 : 四象頭部觸診法, 醫林 147號, 1982.
15. 朴寅商 : 四象鑑別에 對한 小論, 火曜韓方1號, 1972.
16. 卞柱然 : 四象體質鑑別論, 科學教育 208, 209號 1982.
17. 成守慶 : 四象醫學 體質鑑別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8.
18. 廉泰鎬·金正圭 : 性格要因檢査-實施要綱과 解析方法, 韓國心理適性 研究所, 서울, pp.7-41, 1990.
19. 吳世貞 : 東醫壽世保元에서 본 四象人 體質鑑別法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6.
20. 이영준 : SPSS/PC+를 이용한 多變量分析, 서울, 도서출판석경, pp. 141 - 166, 276-303, 387-438, 1991.
21. 李義柱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妥當

化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5.

22. 李廷燦 :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性格要因檢査(16PF)와의 比較分析,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2.
23.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1979.
24. 章世圭 :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評價方法의 妥當化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4.
25. 鄭成忠 : 四象體質鑑別에 對한 客觀的 研究, 醫林 151호, 1982.
26. 趙鑄台 :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性格要因 (16PF), 性格類型檢査(MBTI)와의 比較 分析- 第一回 國際四象醫學 學術大會 論文集, P 65, 1994
27. 채서일 등 : SPSS/PC+를 利用한 統計分析, 학현사, 서울, 1995.
28. 河萬秀 : QSCC의 컴퓨터 프로그램化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5
29. 韓熙錫 : 四象體質鑑別의 概要, 東洋醫學 5號, 1976.
30. 韓熙錫 : 내가보는 鑑別法, 火曜韓方 3號, 1973.
31. 韓熙錫 : 내가보는 四象鑑別法, 醫林 49號, P.2 4, 1965.
32. 許萬會 :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1.

## 각 주

- 1) QSCC의 平均 正確判別率 55.56% (金善豪, 1993)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平均 正確判別率 57.93% (李義柱, 1995)
- 2) 各 階層別로 基準을 달리 適用하되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가를 研究하여 그 規準(Norms)을 만드는 것이

다. 例컨데 어떤 代表集團의 사람들이 實際로 그 檢査에서 應答한 것을 正確히 알아내서 그 것을 根據로하여 規準(Norms)을 만들고, 經驗의으로 만들어진 規準을 參考로 하여 設問檢査의 點數를 解析하는 方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個人의 原點數를 標準化集團에서 觀察된 點數들의 分布에 비추어서 그가 바로 그 分布上의 어떤 位置에 屬하는 지를 찾아 낼 수 있다.

- 3)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에서 統計的으로  $P < 0.01$  水準에서 意味 있을만큼 問項適格度 및 反應頻度가 높다고 分析된 問項들.
- 4) 問項數·年齡과 性別의 差異 等を 考慮하여 體質鑑別의 基準을 달리하는 方法에 對한 研究
- 5) 한 變數의 變數값들이 나타난 頻度가 期待頻도와 어느 程度 一致하는지의 與否를 檢證하는데 利用되는 方法으로서 여기서는 問項의 辨別力을 檢證하는 方法으로 利用되었다.
- 6) 理論의 根據에 基礎하여 檢査問項을 構成하는 方法
- 7)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 8) 두 集團 以上의 平均 間의 差異를 檢證하는데 利用되는 方法이다. 즉 集團間의 平均이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지의 與否를 檢證할 때 쓰인다.(ANalysis Of VAriance=ANOVA)
- 9) 變量分析에서는 모든 集團을 二個의 組合으로 만들어 이들 組合間의 差異를 比較하는 Scheffe test, Duncan test, Turkey test 等の 事後檢證(multiple comparison test)를 實施할 수 있다. 事後檢證은 個別比較라고도 하며 여러 集團 사이에서 特別 어떤 集團間에 差異를 보이는 가에 對하여 複合的으로 알아 볼 수 있는 檢査方法이다
- 10) “평소 손발이 찬편 이다”의 問項은 分析 結果 少陽 尺度, 少陰尺度 둘 모두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 11) 本來의 意圖는 太陰人이 下體가 더 發達하였다는 問項을 選擇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反對로 上體가 發達하였다고 對答하는 사람이 많은 理由를 생각해 보면 一般人들은 다리만을 下體라고 생각하여 腹部가 肥大한 太陰人들도 上體가 發達한 것이라고 判斷 하는 것으로 推測된다
- 12) 各 尺度를 構成하고 있는 問項들이 얼마나 一貫되게 비슷비슷하게 이루어 졌는가 즉, 內容이 얼마나 同質의이냐의 係數이다. 예를 들어 어느 尺度의 構成 問項이 異質的 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뜻하는 바는 問項 內容이 여러 가지 內容의 多樣한 角度的 問項들이 包含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보통 信賴度가 Cronbach's  $\alpha$  係數로 0.5 以上 이면

- 信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13) 原資料의 特性을 整理, 表現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尙大한 原資料를 縮小시켜 利用目的에 맞도록 集約하여 簡潔한 形態로 表現한 것(平均, 標準偏差, 分散 等)
  - 14) 變量分析結果 나타나는 ANOVA Table에서 F값은 集團間分散/集團內分散으로 表示된다.
  - 15) 判別分析(discriminant analysis)은 二個 以上の 集團 區分을 하는데 있어 區分 誤謬를 最少化 할 수 있는 函數式을 이끌어 내는데 焦點을 둔다. 이를 判別方程式이라 하며 이러한 判別分析을 통해서
    - i) 集團들을 區分(判別)할 수 있는 判別函數를 導出하고
    - ii) 여러 獨立 變數들 가운데서 集團 區分에 影響을 미치는 意味있는 變數를 發見한다.
    - iii) 各 集團間에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는 가를 알려주며
    - iv) 그 判別函數에 依하여 새로운 對象들은 各 集團으로 分類하게 된다.
 이러한 判別分析을 通하여 QSCCⅡ로 體質 鑑別을 할 때 어느 變因이 가장 重要하며 얼마나 正確하게 分類할 수 있는 지를 알아 볼 수도 있다.
  - 16) 이 값이 작을 수록 集團間에 分散이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 17) 判別正確率을 높이는데 寄與하는 程度
  - 18) 有意度 判別에 基準이 되는 값 (事例數에 따라 意味가 다르다)
  - 19) Wilks' Lambda에 自由度를 考慮하여 $\chi^2$  값으로 換算하고 有意度を 檢證하게 되는데 0.05 未滿이면 有意한 것으로 본다. 有意성이 있다는 것은 判別式에 依한 集團間的 點數 差異가 統計的으로 意味 있는 程度이다 라는 뜻이다. .
  - 20) 集團間的 分散을 集團內的 分散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이 클 수록 좋은 判別函數가 되는 것이다.
  - 21) QSCC 評價方法 研究를 通하여 40代의 女子에게는 點數解釋의 差異를 두어야 한다고 指摘 하였다(章世圭,1994)
  - 22) 男子라 하더라도 年齡에 따라 意味 있는 差異가 있는가? 女子라 하더라도 年齡에 따라 意味있는 差異가 있는가? 같은 年齡이라 하더라도 男女間에 差異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方法이 된다.
  - 23) 各各의 性別 年齡 條件을 同一하게 만든 狀態에서 的 點數  

$$T點數=50+10 \times (原點數-M)/SD$$
 M:性別 年齡別 平均  
 SD:各 性別 年齡別 標準偏差를 代入한다(Table 12).
  - 24) QSCC 妥當化 研究에서는 太陽尺度와 少陰尺度만이 統計的으로 有意성이 體質間的 差異가 있는 것이었다(金善豪,1992).
  - 25) 李義柱: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妥當化 研究 (1995).
  - 26) 心理類型檢査
  - 27) 性格要因檢査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QSCC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Sun Ho Kim*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 Il Byung Song, O. M. D.,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standardize the four scales of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II). QSCCII is newly prepared by statistical item analysis and is designed to examine its diagnostic discriminability. QSCCII is administered to 1366 random informants. From the survey, we could get the data for the standardization. The criteria of standardization are based on the data from 265 informants who are examined by professionals. Collected data are analyzed by internal consistency, variation analysis(ANOVA), Duncan test and discrimination analysis of SPSS PC+ V4.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liability of four scales for QSCCII is relatively vali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ae-yang(太陽) scale is Cronbach's  $\alpha=0.5708$ . That of So-yang(少陽) scale is  $\alpha=0.5708$ . That of Tae-eum(太陰) scale is  $\alpha=0.5922$ . That of So-eum(少陰) scale is  $\alpha=0.6319$ .

2)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 through variation analysis of four scales.

3)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is based on the average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with respect to age and sex difference of each criteria.

4) This study suggests a source of standardization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by providing norms in which the differences of age, sex, and number of items are taken into deep consideration. QSCC II, therefore, can be applied to every age(the 10's to the 60's) and sex groups.

5) The recalculation of the raw-score to standard value (T-score) shows that the diagnostic discriminability (Hit-ratio : 70.08%) of QSCCII brings about 37% improvement than proportional chance criteria(33.33%). Especially, Hit-ratios of Tae-eum In(74.5%) and So-eum In(70.8%) are

higher than that of So-yang In(60.0%).

6) QSCC has discriminability only to male informants. Compared with QSCC, however, QSCCII has relatively efficient discriminability both to male and female informants.

7) These results would be a demonstration of the fact that the QSCCII could be used as a tool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 附 錄 1 >

- 본 검사는 귀하의 체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체질이란 사람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 # 설문에 답하는 요령 #

1. 다음 페이지의 설문 문항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자신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하십시오.
2.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게 응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마음 가짐을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3. 시간제한은 없으나 어느 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4.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을 선택 하십시오.
5. 대답하는 요령에 의문이 있으시면 지금 검사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에 따라 답안지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1.답안지의 인적사항1.의 내용을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2.답안지의 인적사항2.의 빈 칸에 아래의 보기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번호를 골라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 별 1. 남성 2. 여성

◎혈 액 형 1. A형 2. B형 3. O형 4. AB형

◎결혼상태 1. 기혼 2. 미혼 3. 별거 4. 사별 5. 이혼 6. 동거

◎교육상태 1. 무학 2. 국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직 업

**학 생**

11.중학생 12.고등학생(문과) 13.고등학생(이과) 14.고등학생(예체능) 15.고등학생(실업계) 16.전문대학(인문) 17.전문대학(자연) 18.대학생(인문) 19.대학생(자연) 20.대학생(예체능) 21.대학원생

**사무 및 행정직**

22.회사원(사무직) 23.회사원(영업직) 24.회사원(기술직) 25.회사중역  
26.공무원 27.기타

**연구 및 전문직**

28.교사 29.교수 30.연구원 31.전문상담원 32.회계사 33.언론계종사자  
34.사회사업가 35.기타

**사기업 경영**

35..무역업자 36.도소매업자 37.출판업자 38.운수업자 39.기타

**법무관계직**

40.판사 41.검사 42.변호사 43.법무사 44.기타

**의료보건직**

45.의사 46.약사 47.간호사 48.병원종사자 49.기타

**공업 및 기술직**

50.건축설계사 51.토목기사 52.전자 및 전기기술자 53.기계기술자  
54.금속 및 화학기술자 55.자동차정비공 56.보일러공 57.기타

**종교관계직**

58.목사 59.신부 60.종교계 종사자 61.기타

**보안업무직**

62.경찰관 63.소방관 64.군인 65.경비원 66.교도관 67.기타

**농·수산업**

68.농업종사자 69.어업종사자 70.기타

**예술 및 체육**

71.화가 72.음악가 73.조각가 74.배우(연극 영화),탈렌트  
75.사진작가,영화감독 76.디자이너 77.기타

**서비스직**

78.음식점원 79.관광요원 80.운전기사 81.세탁업자 82.이미용업자  
83.외판사원 84.백화점 판매사원

**가사 및 노동**

85.각종배달원 86.부동산중개업자 87.기타  
88.주부 89.노무자 90.무직 91.기타

A. 아래 문제들의 예문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 ① 체격이 큰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 ① 뚱뚱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마른 편이다.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③ 상하체가 비슷하다.

4. 다음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목덜미부위가 잘 발달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②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부위가 빈약하다.  
③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쪼는 편이다.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6. 당신의 가슴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7. 당신은 다음중 어떤음식을 좋아하십니까?

- ① 뜨거운 음식                      ② 따뜻한 음식                      ③ 시원한 음식                      ④ 차가운 음식

8.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                      ②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있게 걷는다.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양전하다.  
③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④ 걸음걸이가 꼳꼳하다.

10.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 ③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11. 당신의 손과 발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거울에 손발이 잘 뜬다.                      ② 거울에 손발이 잘 트지 않는다.

12.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 ③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13. 속마음에 관한 표현중 당신과 가까운 쪽은 어느것입니까?

- ①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
- ② 남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 ③ 남들에게 욕심이 많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 ④ 셈이나 질투가 많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14.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 ① 나는 너무 예의차리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 ② 나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 ③ 나는 너무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 ④ 나는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15.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 ① 무슨 일이든지 물려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 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④ 한곳에 있으려고만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B. 아래의 설문 문항들을 주의깊게 읽은 다음, 자신이 일상적인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모두 v표 하여 주십시오. (v표시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처리와 장단점

-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30.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32. 나는 무슨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대인관계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36. 절도가 있고 엄격한 편이다.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2.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43.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영리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평소의 마음

-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 49.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 53. 인내심이 많다.
-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
-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문제점

- 62. 아는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감정특성

- 68.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 71.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72.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행동특성**

-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74.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 79.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 80.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 81.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82.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 85. 자신에게는 소홀히하고 남에게는 깍듯이 대한다.
- 86.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는데는 인색한 편이다.
- 87.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 91.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있다.
-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 93.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 96. 말로는 서로 특 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 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98.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 몸상태

- 102.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 103.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 104. 변비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다.
- 105.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 106. 손발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적이 많다.
- 107. 코밀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적이 많다.
- 108. 몸이 안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 109. 몸이 안좋으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 110. 몸이 안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 111. 몸이 안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 115. 평소 건강할 때에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 118. 간혹 눈 주위가 뻑뻑할 때가 있다.
- 119.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아플 때가 있다.
-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
- 121. 겨울철에 찬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 사상체질분류검사 답안지

검 사 일 :        년   월   일

※ 인적사항 1.

성명		생년월일(양,음)	년   월   일 (만   세)		
주소			전화		
키	cm	몸무게	kg		

※ 인적사항 2.(문제지의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찾아 기입해 주십시오.)

성별	혈액형	결혼상태	교육상태	직업

※ 1번에서 15번까지는 번호를 써 넣고, 16번에서 끝까지는 해당하는 항목에만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 附 錄 2 >

用例 * 問項에 關聯된 原文( 出典 題目 ).....明朝體 * QSCC에서의 問項 例( 問項適格度 ).....고딕體 QSCCⅡ의 問項 內容( 問項適格度 및 加算點與否(+記號) )..진한 新明朝體 CF)비슷한 內容의 問項番號
--

<p>* 太陽人 體形氣像 腦顛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顛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          太陽女 體形 壯實而 肝小脇窄 子宮不足 故 不能生產          以六善玩理而 太陽牝牛馬 體形壯實而 亦不能生產者 其理可推          太陽人 體形 元不難辨而 人數 稀罕故 最爲難辨也          其體形 腦佳頁之起勢 強旺 性質 疏通 又有果斷</p> <p>肌肉 宜瘦 不宜肥(太陽人 內觸小腸病論)</p> <p>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p> <p>少陰人 體形 矮短而 亦多有長大者 或有八九尺長大者          太陰人 體形 長大而 亦或有六尺矮短者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而 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p> <p>* 1(체질,문항적격도) 키가 큰편이다.          2( ) 보통이다.          3( ) 키가 작은 편이다.          4( ) 뚱뚱한 편이다.          5( ) 보통이다.          6( ) 마른편이다.          7( )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8( )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9( ) 상하체가 비슷하다.</p>
--

1.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四象尺度 問項適格度)

- ① 체격이 큰편이다. (太陽0.1154) (+太陰0.2248)
- ② 보통이다. (少陽-0.0085)
-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少陰0.1127)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 ① 뚱뚱한 편이다. (太陰0.2776)
- ② 보통이다.
- ③ 마른 편이다. (少陰0.1838)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太陽0.1239) (少陽0.0947) (太陰0.1780)
-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③ 상하체가 비슷하다. (+少陰0.1025)

4. 다음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목덜미부위가 잘 발달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 ②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부위가 빈약하다. (少陽0.0735)
- ③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太陰0.0618)
-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少陰0.1136)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 問項 2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쪼면 편이다. (太陰0.3167)
-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少陰0.2088)
- ③ 보통이며 다부진 體格이다. (+少陽0.0942)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 問項 10

6. 당신의 가슴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 (+太陰0.2057)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少陰0.2441)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太陽-0.0025)

\* 曰 少陽人 有嘔吐則 必有大熱也  
少陰人 有嘔吐則 必有大寒也  
太陰人 有嘔吐則 必病愈也  
今 此 噎隔反胃 不寒 不熱 非實 非虛則 此 非太陽人病而 何也?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98( )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99(태양, .28 )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소양, .24

7. 당신은 다음중 어떤음식을 좋아하십니까?

- ① 뜨거운 음식 (+少陽0.0203)      ② 따뜻한 음식 (+少陰0.0805)      ③ 시원한 음식 (太陰0.0288)      ④ 차가운 음식 (太陽0.0490)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問項 11의 變形

8.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 (+少陽-0.0382)      ②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太陽0.1079)  
(+少陰0.1673)      (太陰0.1173)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問項 4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있게 걷는다. (+太陰0.1132)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암전하다. (少陰0.0588)  
③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少陽0.1867)      ④ 걸음걸이가 꽃꽃하다. (太陽0.0083)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問項 5

10.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太陰0.1662)

-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少陰0.2501)
- ③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少陽-0.0537)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 I ) 問項 11의 變形

11. 당신의 손과 발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거울에 손발이 잘 튼다.                      ② 거울에 손발이 잘 트지 않는다.

\* 太陽人 體形 元不難辨而 人數 稀罕故 最爲難辨也  
其體形 腦佳頁之起勢 強旺 性質 疏通 又有果斷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辨證論)

12. 당신의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0( ) 평소에 잔병치레가 없다.                      \* 11(소양, .58 ) 민첩하고 용감하다

-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太陽0.1532)    (+少陽0.2596)  
(太陰0.0553)

\* 12( ) 의젓하고 위엄이 있다.                      \* 13(소음, .24 ) 단정하며 꼼꼼하다.

- ③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少陰0.1459)

\* 鄙者之心 專是竊也 薄者之心 專是侮也 貪者之心 專是奪也  
懦者之心 專是妬也(格致叢 獨行編)

\* 76(소양, .32 )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77(소양, .31 ) 남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78(태음, .19 )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79( )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3. 속마음에 관한 표현중 당신과 가까운 쪽은 어느것입니까?
- ①(CF)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  
(太陰-0.0082)
  - ② 남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③ 남들에게 욕심이 많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④ 샘이나 질투가 많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 鄙者 他無所忌 而所獨忌者 察密而禮全者也  
 薄者 他無所忌 而所獨忌者 恩信而仁全者也  
 貧者 他無所忌 而所獨忌者 經濟而義全者也  
 懦者 他無所忌 而所獨忌者 材幹而智全者也  
 (以上 格致彙 卷之三 獨行篇)

\* 89(태양, .40 ) 나는 너무 예의 차리는 사람을 꺼린다.  
 90( ) 나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는 사람을 꺼린다.  
 91(소양, .37 ) 나는 너무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을 꺼린다.  
 92( ) 나는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람을 꺼린다.

14.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 입니까?

① 나는 너무 예의차리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太陰0.0594)

② 나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少陽0.0674)

③ 나는 너무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④ 나는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어쩐지 싫다.

\*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 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 不欲出

36(태양, .48 ) 무슨 일이든지 물려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37(소양, .33 )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38(태양, .28(아니오))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편이다.  
 태음, .53  
 39(소음, .34 ) 한곳에 있으려고만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15.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① 무슨 일이든지 물려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太陰0.1397)

- 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少陽0.2285)
-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④ 한곳에 있으려고만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B. 아래의 설문 문항들을 주의깊게 읽은 다음, 자신이 일상적인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모두 v표 하여 주십시오.

(v표시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처리와 장단점

\* 14(무작위,왜곡)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少陽0.1754) (太陰0.1850)

\*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

\*15(태양, .58 )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16(태양, .49 )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태음, .21(아니오)

17(소양, .54 )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18(소양, .41 ) 대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19( )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는 편이다.

20(태음, .31 )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수 있다.

21(소음, .32 )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22( ) 주로 가까운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

- 17.cf)34.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太陽0.2925)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少陽0.2859)

-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少陽)
-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少陽0.1895)
-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太陰0.2127)
-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少陰0.1468)
- 23.cf) 3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少陰)
-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太陰0.0537) (少陰0.1375)

\*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彛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 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少陰人 謹於黨與故 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此心 出於秉彛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交遇故 每爲生疎交遇人所誣而 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 不周故也  
 少陽人 重於事務故 恒有出外與事務之哀心 此心 出於秉彛之敬心  
 莫非至善而 不謹於居處故 每爲內做居處人所陷而 偏哀傷臟  
 以其重外而 輕內故也  
 太陰人 重於居處故 恒有內做居處之樂心 此心 出於秉彛之敬心  
 莫非至善而 不謹於事務故 每爲出外與事務人所誣而 偏樂傷臟  
 以其重內而 輕外故也

\* 23(태양, 45 ) 친구 사귄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소음, 39(아니오)

24( )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서 바깥일에 열심이다.

25( ) 바깥일은 소홀히 하면서 집안일에 열심이다.

26(소음, 48 ) 친구를 사귄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少陽)
-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少陽0.1228) (太陰0.0983)
-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少陰)
-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少陽0.2339)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少陰0.0689)

30. 사람을 사귈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太陰0.0599) (少陰0.1721)

\*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寬足輕 鬯銳好勇(辨證論)  
\* 11(소양, 58 ) 민첩하고 용감하다.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少陽0.2906)

\* 40(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32. 나는 무슨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  
\* 21(소음, 32 )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33.CF) 23. 단정하고 신중하다.

(+少陰)

\*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 15(태양, 58 )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34.CF) 17.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太陽0.3397)

\*대인관계

\*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 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  
少陽人 雖至愚 其性 恢恢然 猶式度也 雖至不肖 人之知愚 亦知之也  
太陰人 雖至愚 其性 卓卓然 猶教誘也 雖至不肖 人之勤惰 亦知之也  
少陰人 雖至愚 其性 坦坦然 猶撫循也 雖至不肖 人之能否 亦知之也

\* 27(태양, 22 )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소음, 34(아니오)

28( ) 예의와 격식을 잘 차리는 편이다.

29( )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30( )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랠다.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36. 절도가 있고 엄격한 편이다.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少陽0.1454) (少陰0.0725)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少陰0.1194)

\* 31(태양, .50 )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少陽0.1905) (太陰0.1146)

\* 32( ) 사람을 볼때 우선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

33(소양, .58 ) 사람을 볼때 우선 학력을 본다.

34( ) 사람을 볼때 우선 근면성을 본다.

35(소음, .30 ) 사람을 볼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太陽0.2342)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太陽0.1911)

42.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43.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영리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太陰0.2681)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太陰0.2072)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少陰0.1100)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太陰0.2309) (少陰0.1010)

\*평소의 마음

\*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 怯心 至於怕心則 大病作而 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懼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 懼心 至於恐心則 大病作而 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 卽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則 肝血 卽和也  
 余足之曰 太陰人 察於外而 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而 恒寧靜懼心  
 太陽人 退一步而 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而 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則 必無不壽(四象人 辨證論)

\* 41(太陽, .20 ) 항상 성급한 편이다  
 42(少陽, .32 )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43(太陰, .50 )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44(少陰, .51 )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太陽0.2536) (少陽0.3577) (太陰0.1286)
- 49.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少陰-0.0152) (+少陽)
- 50.cf)88.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太陰0.0911) (少陰0.1866)
- 51.cf)89.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少陰)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問項 17, 18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少陽0.0643) (少陰0.2594)
- 53. 인내심이 많다.  
 (太陰0.1496) (少陰0.1028)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 問項 20

-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少陽)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少陽)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 I ) 問項 19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少陰)

\* 알기쉬운 四象醫學 p.42~43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少陰0.1544) (+少陽)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少陽0.2167)

\* 알기쉬운 四象醫學 p.46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  
(少陽0.1368) (+少陰)

\* 46(\*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 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 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 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 不欲外勝

\*47(太陽, .40 )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少陽, .35

61.cf)10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太陽0.3180) (少陽0.2440) (太陰0.2123)

\*문제집

\* 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故 黨與 侮也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  
少陰之喜 能雅立於黨與故 黨與 助也 少陰之怒 不能勇統於交遇故 交遇不助也  
是故 少陰之浪喜 不在於黨與而 必在於交遇也  
少陽之哀 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欺也 少陽之樂 不能恒定於居處故 居處 欺也  
是故 少陽之暴哀 不在於事務而 必在於居處也  
太陰之樂 能恒定於居處故 居處 保也 太陰之哀 不能敏達於事務故 事務不保也  
是故 太陰之浪樂 不在於居處而 必在於事務也

48(太陽, .27 ) 친구는 많지만 막상 속을 터놓을 사람은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49(少陽, .53 ) 밖으로 나들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50( ) 집안일을 중요시 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어려울 때가 많다.

51(少陰, .51 )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62. 아는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太陽0.1946)

63. 밖으로 나들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少陽)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少陰0.2008)

\* 52(\*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少陽0.2956) (少陰0.2317)

\* 53(太陰, .45 )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감정특성

\*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四端論)

\* 54( ) 화를 잘 내는 편이다.

55( ) 슬퍼질때가 많다.

56( )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57(少陰, .38 )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68.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太陽0.2757)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少陽0.3430)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71.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72.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少陰0.2217)

\* 행동특성

\* 45(\*무작위 또는 등기왜곡 )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太陰0.2021) (少陰0.1646)

\*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雄 若全好爲雄則 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雄 若全好爲雄則 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 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 物欲之心 必過也(擴充論)

\* 58(太陽, .59 )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59(少陽, .36 )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60( ) 돈이나 물건에 욕심이 많은 편이다.

61(少陰, .31 )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74.cf)92.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少陽0.2758) (太陰0.0508)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少陽0.2785)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太陰0.1668) (少陰0.1731)

77. cf)94.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棄禮而放縱自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自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自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自 名曰 貪人

\* 鄙者陋담 薄者攷回 貪者驕橫 懦者詐僞

\* 62(太陽, .49 )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63(少陽, .50 )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64(太陰, .21 )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65( )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太陽0.2482)

79.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80.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81.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少陰0.2244)

\* 66(\*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82.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 工續有勤怠 而鄙者之工續 自怠而勤人  
 愛敬有輕重 而薄者之愛敬 自敬而重人  
 體統有汚隆 而貪者之體統 自隆而汚人  
 報復有厚薄 而懦者之報復 自厚而薄人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太陽0.1882)

84. 자신은 認定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少陰0.1320) (+少陽)

85. 자신에게는 소홀히하고 남에게는 각뚱이 對한다.

(太陰0.1946)

86.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는데는 인색한 편이다.

\* 71(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87.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少陰0.1082)

\*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 怯心 至於怕心則 大病作而 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 43(太陰, .50 )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88.cf)50.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太陰0.0696)

\*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 卽活也  
\* 44(少陰, .51 )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89.cf)48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少陰)

\* 鄙者之心 專是竊也 薄者之心 專是侮也 貪者之心 專是奪也  
懦者之心 專是妬也  
\* 76(少陽, .32 )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77(少陽, .31 ) 남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78(太陰, .19 )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79( )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90.cf)13.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太陽0.1602)

91.cf)13.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 鄙者不恭其心 薄者不愛其家 貪者不敬其業 懦者不勤其身  
\* 72(太陽, .35 )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73(少陽, .45 )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74(太陰, .19 )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75(少陰, .42 ) 대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 92. cf)74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太陽0.1630)
- 93.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少陽0.1827)
- 94. cf)77.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太陰0.0740)
-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少陰)

\* 鄙者之波辭 佯與於相成 而憂人之實相成者 兩相仗也  
 薄者之邪辭 佯與於相依 而憂人之實相依者 兩相依也  
 貧者之淫辭 佯爲行廉 而憂人之實行廉者 克行廉也  
 懦者之遜辭 佯爲開喻 而憂人之實開喻者 克開喻也

80( ) 말로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린다.

81( ) 말로는 서로 의지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린다.

82( ) 말로는 서로 욕심내지 말자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청렴함만을 원한다.

83( ) 말로는 서로 욕심내지 말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 자신의 욕심은 많은 편이다.

84(少陰, 34 ) 말로는 서로 특 터 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 96. 말로는 서로 특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少陰)

\* 鄙者之心 恒有憤懣之心者 恒不得所欲之故也  
 懦者之心 恒有好藥之心者 恒欲得所欲之故也  
 貧者之心 恒有恐懼之心者 取於人者 不爲不多 而恒不繼之故也  
 薄者之心 恒有憂患之心者 吝於己者 不爲不密 而恒不足之故也

\* 85( ) 입을 성취하였어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86(少陽, 43)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87( ) 풍족한 상태에서도 항상 부족감을 느껴 더 가지려 한다.

88( ) 일이 어느정도만 이루어져도 만족할 때가 많다.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太陽0.2027)

98.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少陰0.1496)

101.cf)6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少陰)

\* 몸상태

\* 太陽人 噎膈則 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 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 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 臍下 必如氷冷

\* 94( )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목주위에 이상이 온다.

95( )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가슴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96( )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배꼽주위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97( )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아랫배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102.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太陽0.1192)

103.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太陰0.1199)

104. 변비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다.

105.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少陰0.1953)

\* 少陽人 病愈之泄 手足掌心先汗而 一次滑泄 表氣清寧而 精神爽明(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106. 손발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적이 많다.

\* 少陰人 病愈之汗 人中先汗而 一次發汗 胸膈壯快而 活潑(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107. 코밑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적이 많다.

\*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 102( ) 소변량이 많고 시원하게 나올 때이다.

103( ) 대변이 잘 나올 때이다.

104( )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이다.

105( ) 소화가 잘 될 때이다.

108.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太陽0.1642)

109. 몸이 안 좋으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110.cf)121.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太陰0.2109)

11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少陰0.3255)

\* 少陰人 平時呼吸 平均而間有一太息呼吸也(四象人 辨證論)

112. 평소엔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少陰)

\* 解休者 上體完健而 下體解休然 脚力 不能行去也而

其脚 自無麻痺腫痛之證 脚力 亦不甚弱

此 所以弱不弱 壯不壯 寒不寒 熱不熱而 其病 爲腰脊病也(太陽人 外感腰脊病論)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太陽0.0874)

\* 太陰人證 有食後痞滿 腰脚無力病(太陰人 泛論)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少陰0.2369)

\* 太陰人 有胸膈 怔忡症也(四象人 辨證論)

115. 평소 건강할 때에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 少陰人 有手足悞亂證也(四象人 辨證論)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少陰0.2452)

\* 太陰人 有目眇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太陰0.1256)

118. 간혹 눈 주위가 퍽퍽할 때가 있다.  
(太陰0.2232)

\*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而  
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119.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아플 때가 있다.

\*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四象人 辨證論)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  
(少陰0.2640)

\*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 104( )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이다.

121.cf)110. 겨울철에 찬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太陰0.1877)